

[2021년 국가조사]

2021년 국가조사

조사보고서

2021년 9월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도쿄지사

《조사요강》

【조사목적】

최근 일본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음. 농업종사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인한 휴경지 증가 및 농가소득의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식량자급률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으로 경제협력(EPA/FTA 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자유화 촉진의 여파로 일본농업은 국내시장의 개방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는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지정해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업시장, 농산물유통은 다양한 변화 속에 있음. 향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과제임. 한편, 2050년에는 세계 총인구가 2000년 대비 1.5배인 92억 명에 달할 것임. 따라서 총식량생산을 1.55배 증가해야 하며, 그중 곡물은 29.3억 톤으로 1.65배의 생산증가가 필요함.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조사는 일본의 농업현황 및 농식품 시장동향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한국산 농식품의 일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간】

2021년5월~8월

【조사방법】

- 폐사 보유 데이터 재수집·분석
- 공적 데이터 등의 수집·분석
- 기존자료의 수집·분석

2021년 농식품 수출 국가조사 보고서 (일본)

요약

1. 농업 및 농식품의 수출입 현황

가. 농업 현황

- 2019년의 농업 총생산액은 전년대비 98.2%인 8조8,938억 엔으로 감소함. 매년 증감을 되풀이하면서, 최근 30년간 3조 엔 이상 감소하여, 2018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기간적(基幹的) 농업종사자 수는 136만3,000명임. 농업종사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60세 이상이 전체의 80%를 차지함
- 2019년 품목별 생산액은 「경종(논, 밭 재배작물)」 8조8,938억 엔, 「축산」 3조 2,107억 엔, 「가공농산물」 530억 엔으로, 특히 「채소」(2조1,515억 엔), 「쌀」(1조 7,426억 엔) 등의 생산액이 많음
- 2019년 농작물 재배면적은 401만9,000ha로 최근 7년간 14만8,000ha 감소. 종류별로는 벼농사 147만ha, 채소류 46만4,000ha, 보리류 27만3,000ha 등

나. 농식품 수출입 현황

- 2020년 농림수산물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93.4%인 8조8,942억 엔으로 감소.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농산물은 6조2,125억 엔, 수산물이 1조4,640억 엔으로 모두 감소
- 2020년은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감소했으며, 「곡물·곡물가루조제품」이 7,281억 엔, 「기타 조제식료품·음료」가 6,030억 엔, 「담배」가 5,810억 엔 등
- 2020년 일본으로의 수입액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캐나다, 태국, 호주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수입액이 감소하고 있음. 한국은 2,780억23백만 엔으로 10위
- 농림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액은 「담배」가 2020년 5,809억75백만 엔으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 4,751억6백만 엔, 쇠고기 3,573억72백만 엔 등, 상위 7품목까지 농산물이 차지
- 2019년 한국산의 일본 수입액은 농산물이 2,072억8백만 엔, 임산물 16억69백만 엔, 수산물 802억48백만 엔으로, 농림수산물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음. 품목별로는 「담배」가 1,102억63백만 엔으로 가장 많음

2. 농식품 시장현황

가. 시장개요

- 2019년 신선식품 전문점의 판매규모는 2조4,200억 엔으로 약간 감소했음. 인터넷 슈퍼마켓 등의 신선식품 전자상거래에서는 2020년 이후 대기업의 본격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참여가 잇따르고 있음
- 가공식품시장(메이커 출하금액 기준)의 2019년도 시장규모는 29조6,553억 엔으로 보합 추이. 조리의 간편화 및 시간단축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은 착실히 확대되고 있지만, 매년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음
- 카테고리별 2019년도 시장규모 구성비는 음료가 18.7%로 가장 높고, 과자가 13.5%, 주류가 11.4%임
- 인스턴트식품·레토르트식품 및 냉동식품, 빵·면류, 간편성이 높은 카테고리와의 건강의식 고조로 건강식품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음

- 일본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는 향후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고령자의 소비활동 확대 및 고령자용 상품·서비스의 확대가 기대됨

나. 시장 트렌드

- 2020년 식료품 지출은 증가했으나, 외식지출은 대폭 감소함. COVID-19의 영향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한 항목은 면류, 신선육, 과일가공품, 유지 등을 들 수 있음. 외식적 내식의 조리식품 및 「홈술」 소비로 주류도 증가함
- COVID-19 영향으로 「비축」 「아침식사」 「직접요리」 「홈술」 을 키워드로 한 식품시장이 신장. 오래 보존할 수 있는 파스타류 등의 면류, 밀가루 및 냉동식품 등의 수요가 높아짐
- 식품 손실 삭감 분위기가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음. 대형 식품기업 및 소매를 중심으로 식품 손실 삭감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비즈니스도 생겨나고 있음
- 인구증가에 따라 육류 수요는 증가하는데, 축산업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콩류나 채소 등을 원료로 한 식물육 유래, 동물세포를 배양해 제조하는 배양육이 주목되고 있음
- 몇 년 전부터 발효식품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COVID-19의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면역력 향상이 기대되는 발효식품에 다시 주목함
- 이전에는 알코올과 섞어 마시는 부재료로 사용되는 탄산수였지만, 「스트레이트 음용(직접 음용)」이 정착하면서 음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음

3. 농식품 유통현황

가. 유통현황 및 특징

- 2019년도 오프라인 유통의 시장규모는 전년도대비 102.4%인 21조6,114억 엔으로 확대세가 계속되고 있음. 식료품 매출이 큰 슈퍼마켓, 편의점이 착실히 매출을 확대하고 있음. 최근에는 드러그스토어가 식품판매에 주력하고 있음
- 2019년도 백화점 식료품 매출액은 1조7,358억 엔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 점포수는 전년도에서 10점포 감소한 210점포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
- 슈퍼마켓(GMS 및 SM)의 식료품 매출액은 매년 확대세에 있으며, 2019년도는 10조 723억 엔으로 10조 엔대를 돌파했음. 2020년도도 COVID-19의 확산으로 외출자제 및 재택근무 확대에 의한 「집콕 소비」의 혜택으로, 식료품의 판매가 호조였음
- 편의점은 식료품 매출액은 2019년도에 7조7,950억 엔으로 2011년도 이후 확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점포수는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했음. 또한 2020년도는 COVID-19 확산에 따라 도심의 오피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매출이 감소하여 시장규모도 감소했음
- 드러그스토어는 식품분야의 신장이 두드러져, 2019년도도 2조84억 엔으로 최근 몇 년간 10% 전후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드러그스토어 업체의 다양화를 진행하면서 소비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음. 2020년도는 COVID-19 확산으로 인바운드 수요가 감소한 한편, 식품수요는 대폭 신장세를 보였음
- 2019년 식품 통신판매 시장의 총시장규모는 전년도대비 3.2% 증가한 약 3조8,086억 엔으로 추계. 식품 통신판매 시장은 확대세가 계속되어, 일정 수요까지는 확대했지만 COVID-19 영향으로 수요가 더욱 표면화
- 쇼핑사이트는 2019년도 식품 통신판매 시장규모는 1조5,020억 엔으로 추계. 쇼핑사이트는 몰형과 직판형으로 크게 나뉘지만, 식품에서는 몰형과 직판형으로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음

- 넷슈퍼는 잠재수요가 높지만, 공급체제에 한계가 있어 출하물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2019년도의 시장규모는 1,450억 엔으로 확대됨
- 식품기업에 의한 직판 전자상거래의 2019년도 시장규모는 연도말에 발생한 COVID-19로 인해, 가공식품, 쌀, 음료, 주류 등에 대한 특수가 발생한 것이 플러스로 작용해, 6,145억 엔으로 확대됨
- 수입식품은 수입업자를 경유해 일본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기본적으로는 수입업자가 양판점 등과 교섭해 판매함. 기타 국내의 식품기업 및 식품 판매회사가 위탁판매 및 라이선스 계약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 청과물 유통은 주로 시장유통과 시장의 유통으로 분류되는데, 신선채소 등은 시장의 유통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일부에서는 도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거래를 확대하려는 소매업의 움직임도 있음

4. 농식품 수출절차

가. 수출절차

- 일본에 수입되는 화물은 보세지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실시, 필요한 심사 및 검사를 받고, 수입이 허가된 후에 화물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음
- 수입절차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과정이 다름. 판매 등의 목적으로 식품을 일본에 수입하는 경우,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위생상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채소·과실 등 식물계 식품은 통림수산성의 식물방역소, 육류, 육류제품 등 축산물계 식품은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수입자가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를 받음

나. 수입제도

- 관세 관련 법령은 주로 수출입절차에 관련된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이 있음
- 또한 필요한 통관절차는 수입방법에 따라 다르며,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등, 관세법 제70조에서 말하는 「타법령」의 허가·승인 등이 필요함
- 화물 수입자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납세)신고를 실시. 신고를 받은 세관은 서류 검사 및 필요에 따라 화물을 검사하고 관세 등의 납부를 확인한 후 수입을 허가함. 통관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화물의 국내 유통이 인증됨
- 식물방역법은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는 아로니아속, 모과, 산사나무속, 비파, 사과속, 마가속 등이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은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 정해져 있으나, 양국간 협의에 따라 가열처리된 돼지고기와 가금육에 대해 조건을 충족한 것은 수입이 가능함
- 식품의 표시는 식품표시기준을 정한 「식품표시법」을 중심으로, 적정한 계량을 규정한 「계량법」, 허위·과대표시를 방지하는 「경품표시법」, 미곡 등의 산지 정보를 전달하는 「쌀 트레이서빌리티법」,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규정되어 있음
- 일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들 법령에서 규정한 표시사항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일본어로 표시해야 함

《목차》

1. 농업 및 농식품의 수출입 현황	1
가. 농업 현황	1
(1) 농업 규모	1
① 농산물 생산 현황	1
② 농업 취업인구 추이	1
(2) 주요 생산품목 및 생산규모	2
① 생산품목별 생산액 추이	2
② 생산품목별 재배면적 추이	3
나. 농식품의 수출입 현황(수산물 포함)	4
(1) 농식품 수출입 규모 및 시사점	4
① 농림수산물의 수출동향	4
② 농림수산물의 수입동향	5
③ 농림수산물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6
④ 주요 농식품의 품목별·국가별 수출입 동향	7
(2) 한국과의 농식품 수출입 현황	10
①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10
②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11
2. 농식품의 시장현황	12
가. 시장개요	12
(1) 시장규모 및 특징	12
① 신선식품시장	12
② 가공식품시장	14
(2) 소비인구 및 특성	17
나. 시장 트렌드	18
(1) 주요 소비 트렌드	18
① COVID-19에 의한 식료품 지출의 변화	18
② COVID-19로 성장이 기대되는 식품 카테고리·품목	18
③ 확대되는 식품 손실 대책	18
(2) 이슈 품목	19
① 식물육(植物肉)	19
② 건강오일(Healthy Oil)	19
③ 발효식품	20
④ 탄산수	20
⑤ 마리토쫄(Maritozzo)	21
다. 농식품 관련 정책	22
① 정부의 농업정책 동향	22
② 「식품 손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	23
3. 농식품 유통현황	24
가. 유통현황 및 특징	24
(1) 유통현황	24

①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규모	24
② 식품 온라인 유통시장의 규모	24
(2) 유통구조	25
① 일본의 식품유통 개요	25
② 농산물의 유통경로 개요	27
나. 주요 유통채널 현황	28
(1) 오프라인 유통채널	28
① 백화점	28
② 슈퍼마켓	29
③ 편의점	31
④ 드러그스토어	32
(2) 온라인 유통 채널	34
① 쇼핑 사이트	34
② 넷슈퍼	34
③ 기업 직판	34
4. 농식품 수출절차	36
가. 수출절차	36
(1) 기본적인 수입절차	36
① 수입절차	36
(2) 대표 품목별 수출절차	37
① 신선품(채소)	37
② 축산품(육류 및 육류제품)	38
③ 가공식품(알코올음료)	39
나. 수입제도	40
(1) 통관제도	40
① 관리·법률 시스템	40
② 통관절차	40
③ 통관제출서류	41
④ 관세제도	42
(2) 검역제도	43
① 관리·법률 시스템	43
② 검역절차	43
③ 검역제출서류	43
④ 검역타결품목	45
(3) 대표품목별 라벨	49
① 라벨 규정	49
② 계량법의 상품중량제도	51
③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부당표시	52
④ 유기JAS규격	52
다.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56
(1) TBT 통관규정	56
(2) SPS 통보현황	58

1. 농업 및 농식품의 수출입 현황

가. 농업 현황

(1) 농업 규모

① 농산물 생산 현황

- 2019년 농업총생산액은 전년대비 98.2%인 8조8,938억 엔임
- 1984년에 11조7,171억 엔이었던 농업총생산액은 매년 증감을 되풀이하면서, 30년 동안 3조 엔 이상 감소했음. 2010년 8조1,214억 엔을 최저 시점으로, 일본농업 총생산액은 약간 증가했으나, 2018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농업총생산액 추이(1984년, 2014~2019년) >

(단위 : 억엔)

	1984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종 계	83,522	53,632	56,245	59,801	59,605	57,815	56,300
축산 계	32,897	29,448	31,179	31,626	32,522	32,129	32,107
가공농산물	753	559	555	598	615	615	530
농업 총생산액	117,171	83,639	87,979	92,025	92,742	90,558	88,938

(출처: 농림수산성 「생산농업소득통계」)

※농업총생산액: 해당년도에 생산된 각 농산물의 생산량(자가소비분 포함)에서 종자 및 사료를 공제한 각 농산물별 생산수량에서 농가의 생산자 판매금액을 곱하여 산출

② 농업 취업인구 추이

- 농업 취업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기간적(基幹的) 농업종사자 수는 136만3,000명임(아래 표의 ※참조)
- 농업종사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은 70세 이상의 종사자가 69만 6,000명(전체의 51.1%)이고, 65~69세가 25만3,000명(동 18.6%), 60~64세가 14만 명(동 10.2%)으로 60세 이상이 전체의 80%를 차지함
- 일본 농업경영이 개인에서 집단 및 법인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연령대별 농업 취업인구 추이(2016~2020년) >

(단위 : 천명, 각년 2/1현재)

년도	합계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세이상
2016년	1,922	118	98	206	247	368	886
2017년	1,816	109	98	178	224	426	782
2018년	1,753	101	91	163	198	451	749
2019년	1,681	93	90	144	175	446	734
2020년	1,363	67	81	127	140	253	696
2020/2016	70.9%	56.4%	82.6%	61.6%	56.7%	68.7%	78.6%

(출처: 농림수산성 「농업구조동태조사」)

※ 「농업구조동태조사」는 매년 2월 1일 현재 농업취업인구(15세 이상 세대원 중 조사일 전 1년간 자영농업에만 종사한 세대원 및 자영농업과 기타 일에 모두 종사했으나, 자영농업 종사일수가 더 많았던 세대원)

※ 2020년 자료는 농림업센서스 참조

※ 농림업센서스에는 2020년부터 농업취업인구 통계가 없으므로, 참고로 기간적(基幹的) 농업종사자 수(일이 주업으로 주로 자영농업에 종사한 세대원 수)를 게재

(2) 주요 생산품목 및 생산규모

① 생산품목별 생산액 추이

- 품목별 생산액은 「경종(논, 밭 재배작물)」이 8조8,938억 엔, 축산이 3조2,107억 엔, 가공농산물이 530억 엔이었음
- 생산액이 높은 것은 「채소」(2조1,515억 엔), 「쌀」(1조7,426억 엔)이었으나, 2014년 과 비교하면 「채소」가 96.0%로 감소한 반면, 「쌀」은 121.5%로 증가했음
- 축산류는 「닭」(8,231억 엔), 「젓소」(9,193억 엔), 「육우」(7,880억 엔), 「돼지」(6,064억 엔)이었으며, 2014년과 비교하면 「소」가 증가한 반면, 「돼지」 「닭」이 감소했음

< 생산품목별 생산액 추이(2014~2019년) >

(단위 : 억엔,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4년대비
농업 총생산액	83,639	87,979	92,025	92,742	90,558	88,938	106.3
경종 계	53,632	56,245	59,801	59,605	57,815	56,300	105.0
쌀	14,343	14,994	16,549	17,357	17,416	17,426	121.5
보리류	384	432	312	420	398	527	137.2
잡곡	60	87	80	93	90	106	176.7
콩류	749	684	554	687	623	758	101.2
감자류	2,075	2,261	2,372	2,102	1,955	1,992	96.0
채소(소계)	22,421	23,916	25,567	24,508	23,212	21,515	96.0
과채류	9,437	10,118	10,512	10,014	10,289	9,676	102.5
엽채류	9,576	10,277	11,031	10,832	9,622	8,955	93.5
근채류	3,407	3,522	4,024	3,662	3,301	2,885	84.7
과실	7,628	7,838	8,333	8,450	8,406	8,399	110.1
화훼	3,437	3,529	3,529	3,438	3,327	3,264	95.0
공예농작물	1,889	1,862	1,871	1,930	1,786	1,699	89.9
기타작물	646	643	635	620	603	614	95.0
축산 계	29,448	31,179	31,626	32,522	32,129	32,107	109.0
육우	5,940	6,886	7,391	7,312	7,619	7,880	132.7
젖소	8,051	8,397	8,703	8,955	9,110	9,193	114.2
우유	6,967	7,314	7,391	7,402	7,474	7,628	109.5
돼지	6,331	6,214	6,122	6,494	6,062	6,064	95.8
닭	8,530	9,049	8,754	9,031	8,606	8,231	96.5
달걀	5,109	5,465	5,148	5,278	4,812	4,549	89.0
기타축산물	595	634	657	730	731	740	124.4
가공농산물	559	555	598	615	615	530	94.8

(출처: 농림수산성 「생산농업소득통계」)

※농업총생산액: 해당년도에 생산된 각 농산물의 생산량(자가소비분 포함)에서 종자 및 사료를 공제한 각 농산물별 생산수량에 농가의 생산자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

② 생산품목별 재배면적 추이

- 2019년 농작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99.2%인 401만9,000ha로, 최근 7년간 14만 8,000ha(2013년대비 96.4%)의 감소 폭을 보임
- 2019년 농작물 재배면적을 보면, 벼농사는 2013년대비 91.9%인 147만ha로, 13만ha의 감소를 보였으나, 최근 감소세가 멈추고 있음
- 채소류는 2013년대비 95.0%인 46만4,000ha로, 1만7,000ha의 감소를 보임
- 보리류는 2013년대비 101.1%인 27만3,000ha로, 최근에는 안정된 움직임을 보임
- 대규모로 효율적인 농업생산 및 판매, 농산물을 가공하는 지역영농조직의 법인화 및 지역 특성을 살린 다각적인 경영을 펼칠 농업법인이 육성되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농업참여제도 완화 및 휴경지 대책과 관련하여 재배면적 자체의 감소 추세는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농작물의 재배면적 추이(2013~2019년) >

(단위 : 천ha)

농작물 종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배 연면적	4,167	4,146	4,127	4,102	4,074	4,048	4,019
1) 벼	1,599	1,575	1,506	1,479	1,466	1,470	1,470
2) 보리류(4종류 계)	270	273	274	276	274	273	273
고구마	39	38	37	36	36	36	34
3) 잡곡	61	60	58	61	63	64	65
3) 콩류	177	180	186	186	186	184	182
과수	230	227	233	220	216	210	209
4) 채소	481	478	475	472	469	464	457
공예농작물	153	151	151	150	—	—	—
5) 사·비료작물	1,012	1,019	1,072	1,082	—	—	—
6) 기타작물	84	84	82	81	—	—	—

(출처: 농림수산성 정보부 「농림수산통계」)

- ※주1: 1)은 수·육도(水·陸稻/식용용) 합계면적. 2)는 6종류 보리(식용용) 합계면적. 3)은 건조잡곡(미성숙한 것 포함). 4)는 완두콩, 누에콩, 콩, 까치콩, 옥수수의 미성숙한 것 포함. 감자는 채소에 포함. 5)는 사료용 덜 익은 작물도 포함. 6)은 화훼, 꽃나무, 종묘 등
- ※주2: 재배 연면적은 벼, 보리류, 고구마, 잡곡, 콩류, 채소, 과수, 공예작물, 사·비료작물 및 기타작물의 재배면적 합계. 따라서 연간생산 구분이 동일한 수도(水稻) 이모작 재배 및 계절구분별 채소 등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2회이상 재배된 경우에는 각각을 재배면적으로 하여 연면적 산출

나. 농식품의 수출입 현황(수산물 포함)

(1) 농식품 수출입 규모 및 시사점

① 농림수산물의 수출동향

- 2020년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101.5%인 9,257억 엔으로 확대가 계속되고 있음
- 농림수산물의 수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4년에 비해 1.5배가 됨
- 2020년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111.4%인 6,552억 엔으로 확대 추이가 계속되고 있으나, 수산물은 79.2%인 2,276억 엔으로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이를 보임

< 농림수산물 수출액 추이(2014~2020년) >

(단위 : 억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산물	3,569	4,431	4,593	4,966	5,661	5,878	6,552
임산물	211	263	268	355	376	370	429
수산물	2,337	2,757	2,640	2,749	3,031	2,873	2,276
농림수산물	6,117	7,451	7,502	8,071	9,068	9,121	9,257

(출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금액은 「기타조제식료품·음료」가 가장 높고, 2020년은 전년대비 118.3%인 3,169억 엔으로 두 자릿수 증가 추이를 보임
- 「수산물(신선·냉장·냉동·염장·건조)」이 수산물 전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전년대비 85.8%인 1,377억 엔으로 감소함

<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금액(2014~2020년) >

(단위 : 억엔)

품 목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수출액	730,930	756,139	700,358	782,865	814,788	769,317	684,005
농림수산물 계	6,117	7,451	7,502	8,071	9,068	9,121	9,257
농산물 계	3,569	4,431	4,593	4,966	5,661	5,878	6,552
축산품	447	470	510	626	659	708	771
잡사	0.2	0.4	0	0	0	45,516	33,370
농산품	3,122	3,961	4,083	4,341	5,000	5,169	5,780
곡물·곡물가루조제품	272	368	378	368	426	462	510
과실·기타조제품	171	253	269	266	318	335	323
채소·기타조제품	73	98	108	101	105	110	122
설탕류	18	18	18	19	21	21	22
기호식품	564	707	757	786	849	835	913
기타조제식료품·음료	1,343	1,694	1,788	2,069	2,496	2,678	3,169
식물성유지(원료)	75	106	91	102	109	119	108
담배	195	236	219	138	185	164	142
천연고무류	1	1	1	1	1	1	1
면	2	4	3	5	6	7	9
기타농산품	408	476	452	488	485	438	462
임산물 계	211	263	268	355	376	370	429
수산물 계	2,337	2,757	2,640	2,749	3,031	2,873	2,276
수산물(신선·냉장·냉동·염장·건조)	1,334	1,592	1,479	1,552	1,697	1,604	1,377
수산조제품	590	653	660	658	737	687	591
기타수산물	413	512	501	539	597	582	308

(출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정보」)

② 농림수산물의 수입동향

- 2020년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93.4%인 8조8,942억 엔으로 감소함
- 농산물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은 전년대비 94.2%인 6조 2,125억 엔이었음
- 수산물의 경우, 2020은 전년대비 84.1%인 1조4,640억 엔으로 전년실적을 크게 밑돌았음

< 농림수산물 수입액 추이(2014~2020년) >

(단위 : 억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산물	63,223	65,629	58,273	64,259	66,220	65,946	62,125
임산물	12,615	12,413	11,228	11,722	12,558	11,848	12,177
수산물	16,569	17,167	15,979	17,751	17,910	17,404	14,640
농림수산물	92,407	95,209	85,480	93,732	96,688	95,198	88,942

(출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금액의 경우, 농산물의 수입액이 가장 높은 것은 「곡물·곡물가루조제품」으로, 2020년은 7,281억 엔이었음
- 2020년은 모든 농산물 수입이 감소했으며, 주요 품목은 「곡물·곡물가루조제품」이 7,281억 엔(전년대비 95.9%), 「기타 조제음료품·음료」가 6,030억 엔(동 90.4%), 「담배」가 5,810억 엔(동 97.0%), 「식물성유지(원료)」가 5,582억 엔(동 100%), 「과실·기타 조제품」이 5,332억 엔(동 99.6%)임
- 수산물은 「수산물(신선·냉장·냉동)이 2020년에 1조40억 엔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금액(2014~2020년) >

(단위 : 억엔)

품 목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수입액	859,091	784,055	660,420	753,792	827,033	785,995	678,371
농림수산물 계	92,407	95,209	85,480	93,732	96,688	95,198	88,942
농산물 계	63,223	65,629	58,273	64,259	66,220	65,946	62,125
축산품	17,550	17,945	16,257	18,731	19,305	19,531	18,131
잡사	38	33	27	34	30	22	12
농산품	45,636	47,651	41,990	45,494	46,885	46,392	43,983
곡물·곡물가루조제품	8,503	8,394	6,840	7,150	7,729	7,591	7,281
과실·기타조제품	4,733	5,309	4,906	5,106	5,470	5,354	5,332
채소·기타조제품	4,753	5,132	4,683	5,000	5,132	5,013	4,514
설탕류	872	785	828	826	652	657	637
기호식품	3,571	4,007	3,497	3,720	3,505	3,404	3,176
기타조제식료품·음료	6,444	6,843	6,061	6,431	6,522	6,667	6,030
식물성유지(원료)	6,373	6,675	5,360	5,741	5,787	5,584	5,582
담배	3,991	4,237	4,396	5,297	5,894	5,987	5,810
천연고무	1,509	1,317	1,008	1,501	1,225	1,226	897
면	182	185	152	182	177	154	103
기타농산품	4,704	4,766	4,259	4,539	4,792	4,755	4,622
임산물 계	12,615	12,413	11,228	11,722	12,558	11,848	12,177
수산물 계	16,569	17,167	15,979	17,751	17,910	17,404	14,640
수산물(신선·냉장·냉동)	11,466	11,750	11,033	12,569	12,232	11,697	10,040
건조수산물	592	537	555	617	600	642	564
수산조제품	3,151	3,378	3,063	3,369	3,526	3,533	3,077
기타수산물	1,360	1,501	1,327	1,197	1,552	1,532	958

(출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정보」)

③ 농림수산물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 일본에서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홍콩인데, 2020년 수출액은 2,066억8백만 엔으로 2년 연속 감소했음
- 다음으로 중국 1,645억26백만 엔, 미국 1,191억73백만 엔으로, 수출액이 1,000억 엔을 넘어섬
- 상위 3개국에 대만(980억53백만 엔), 베트남(543억82백만 엔)을 포함한 5개국에서 농림수산물 전체 수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농림수산물의 국가·지역별 수출실적(2016~2020년) >

(단위 : 백만엔)

순위	국가·지역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1	홍콩	185,300	24.7	187,690	23.3	211,501	23.3	203,684	22.3	206,608	22.3	1.4
2	중국	89,872	12.0	100,715	12.5	133,756	14.8	153,679	16.8	164,526	17.8	7.1
3	미국	104,461	13.9	111,547	13.8	117,644	13.0	123,785	13.6	119,173	12.9	△3.7
4	대만	93,080	12.4	83,784	10.4	90,342	10.0	90,384	9.9	98,053	10.6	8.5
5	베트남	32,291	4.3	39,516	4.9	45,790	5.0	45,385	5.0	53,482	5.8	17.8
상위 5개국 계		505,003	67.3	523,252	64.8	599,033	66.1	616,915	67.6	641,842	69.3	4.0
6	한국	51,126	6.8	59,669	7.4	63,479	7.0	50,144	5.5	41,512	5.0	△17.2
농림수산물 계		750,214	100.0	807,060	100.0	906,757	100.0	912,095	100.0	925,681	100.0	1.5

(출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 일본이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2020년 수입액은 1조5,577억79백만 엔이었음
- 수입액이 1조 엔을 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1조1,907억84백만 엔) 2개국임
- 수입액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캐나다(5,193억49백만 엔), 태국(5,192억96백만 엔), 호주(4,543억26백만 엔)로 5개국에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모든 국가에서 수입액이 감소하고 있음

< 농림수산물의 국가·지역별 수입실적(2016~2020년) >

(단위 : 백만엔)

순위	국가·지역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액	구성비	수입액	구성비	수입액	구성비	수입액	구성비	수입액	구성비	
1	미국	1,577,732	18.5	1,711,605	18.3	1,807,695	18.7	1,647,011	17.3	1,557,779	17.5	△5.4
2	중국	1,164,234	13.6	1,210,978	12.9	1,247,749	12.9	1,190,996	12.5	1,190,784	13.4	△0.0
3	캐나다	508,884	6.0	562,739	6.0	587,478	6.1	569,486	6.0	519,349	5.8	△8.8
4	태국	518,387	6.1	569,389	6.1	571,550	5.9	566,117	5.9	519,296	5.8	△8.3
5	호주	486,076	5.7	538,619	5.7	570,337	5.9	546,299	5.7	454,326	5.1	△16.8
상위 5개국 계		4,255,313	49.8	4,593,329	49.0	4,784,809	49.5	4,519,909	47.5	4,241,535	47.7	△6.2
10	한국	227,668	2.7	273,499	2.9	277,858	2.9	289,127	3.0	278,023	3.1	△3.8
농림수산물 계		8,547,960	100.0	9,373,216	100.0	9,668,791	100.0	9,519,761	100.0	8,894,201	100.0	△6.6

(출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④ 주요 농식품의 품목별·국가별 수출입 동향

- 품목별 수출액은 「알코올음료」가 가장 많았으며, 2020년은 전년대비 7.5% 증가하여 710억30백만 엔을 기록했음
- 다음으로 「소소혼합조미료」가 365억42백만 엔, 「청량음료수」가 341억64백만 엔의 순으로, 모두 전년 실적을 웃돌았음
- 농산물에서는 상위 3품목과 함께 「쇠고기」가 288억74백만 엔, 「과자(쌀과자 제외)」가 188억17백만 엔으로 수출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 농림수산물의 수출실적(2016~2020년) >

(단위 : 백만엔)

순위	품 목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1	알코올음료	42,996	54,503	61,827	66,083	71,030	7.5
2	소스혼합조미료	27,372	29,590	32,539	33,657	36,542	8.6
3	청량음료수	19,431	24,505	28,167	30,391	34,164	12.4
4	가리비(신선·냉장·냉동·염장·건조)	54,834	46,254	47,675	44,672	31,446	△29.6
5	쇠고기	13,552	19,156	24,731	29,675	28,874	△2.7
6	고등어(신선·냉장·냉동)	17,986	21,885	26,690	20,612	20,444	△0.8
7	가다랑어·참치류(신선·냉장·냉동)	9,794	14,262	17,943	15,261	20,388	33.6
8	과자(쌀과자 제외)	18,162	18,222	20,364	20,156	18,809	△6.7
9	해삼(조제)	18,175	20,740	21,070	20,775	18,117	△12.8
10	방어(신선·냉장·냉동)	13,473	15,380	15,765	22,920	17,262	△24.7
상위 10품목 계(A)		235,776	264,496	296,771	304,200	297,075	△2.3
농림수산물 합계(B)		750,214	807,060	906,757	912,095	925,681	1.5
A/B(%)		31.4	32.8	32.7	33.4	32.1	△3.8

(출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 수입은 「담배」가 2020년에 전년대비 3.0% 감소한 5,809억75백만 엔으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돼지고기」 4,751억6백만 엔, 「쇠고기」 3,573억72백만 엔으로 축산물이 상위에 있음
- 수입은 「옥수수」 3,515억91백만 엔, 「신선·건조과실」 3,468억94백만 엔, 「알코올음료」 2,562억23백만 엔, 「닭고기조제품」이 2,379억9백만 엔으로 상위 7품목까지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음
- 주요 농산물의 수입국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물의 수입실적(2016~2020년) >

(단위 : 백만엔)

순위	품 목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률
1	담배	439,597	529,660	589,391	598,699	580,975	△3.0
2	돼지고기	452,830	491,047	486,795	505,078	475,106	△5.9
3	쇠고기	288,764	350,476	384,716	385,119	357,372	△7.2
4	옥수수	333,154	345,799	372,183	384,109	351,591	△8.5
5	신선·건조과실	317,464	324,809	347,827	347,049	346,894	△0.0
6	알코올음료	266,637	286,763	292,552	305,597	256,223	△16.2
7	닭고기조제품	209,748	252,135	267,049	263,773	237,907	△9.8
8	연어·송어(신선·냉장·냉동)	179,534	223,529	225,671	221,816	199,609	△10.0
9	목재칩	232,469	236,339	251,996	260,013	187,706	△27.8
10	냉동채소	169,863	187,689	195,680	201,473	187,074	△7.1
상위 10품목 계(A)		2,890,060	3,228,245	3,413,860	3,472,726	3,180,457	△8.4
농림수산물 합계(B)		8,547,960	9,373,216	9,668,791	9,519,761	8,894,201	△6.6
A/B(%)		33.8	34.4	35.3	36.5	35.8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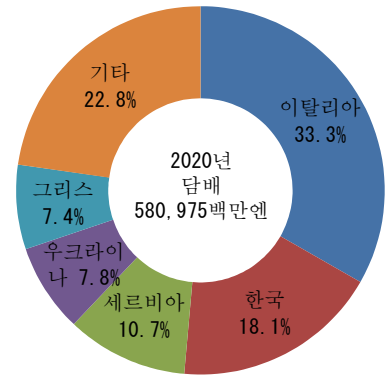
(출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담배

(단위 : 백만엔)

순위	국가·지역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이탈리아	51,448	173,457	209,386	180,402	193,326
2	한국	42,299	75,785	92,399	110,263	105,333
3	세르비아	24,821	28,024	36,840	34,659	61,927
4	우크라이나	39,278	45,163	51,948	46,441	45,104
5	그리스	660	1,233	9,621	47,456	43,020
	기타	281,091	205,998	189,197	179,479	132,265
	합계	439,597	529,660	589,390	598,699	580,975

(출처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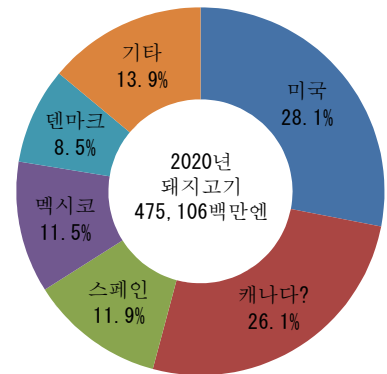


■돼지고기

(단위 : 백만엔)

순위	국가·지역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미국	138,713	140,661	137,856	130,718	133,328
2	캐나다	93,998	113,863	116,686	121,867	124,020
3	스페인	46,740	56,753	58,992	64,823	56,376
4	멕시코	39,634	45,873	47,045	53,581	54,868
5	덴마크	61,993	60,212	56,390	58,696	40,296
	기타	71,751	73,684	69,826	75,392	66,217
	합계	452,830	491,047	486,795	505,078	475,106

(출처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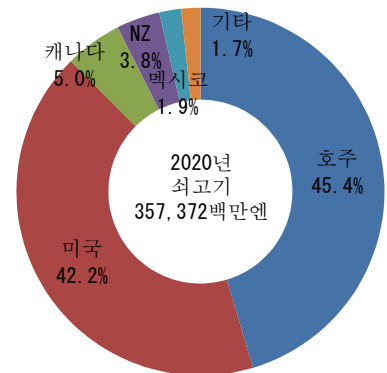


■쇠고기

(단위 : 백만엔)

순위	국가·지역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호주	157,208	174,485	189,582	183,480	162,214
2	미국	109,730	150,661	165,570	155,804	150,702
3	뉴질랜드	5,566	8,018	10,210	21,114	17,881
4	캐나다	11,303	11,223	11,321	13,391	13,748
5	멕시코	3,947	4,839	7,316	7,975	6,831
	기타	1,010	1,250	718	3,355	5,996
	합계	288,764	350,476	384,716	385,119	357,372

(출처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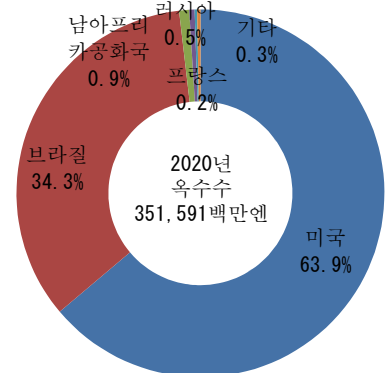


■옥수수

(단위 : 백만엔)

순위	국가·지역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미국	245,845	273,637	342,146	266,093	224,557
2	브라질	81,797	48,724	17,191	108,170	120,493
3	남아프리카공화국	9	11,540	7,997	111	3,106
4	러시아	2,174	4,955	1,785	2,167	1,640
5	프랑스	779	629	780	666	750
	기타	2,549	6,314	2,284	6,902	1,045
	합계	333,154	345,799	372,183	384,109	351,591

(출처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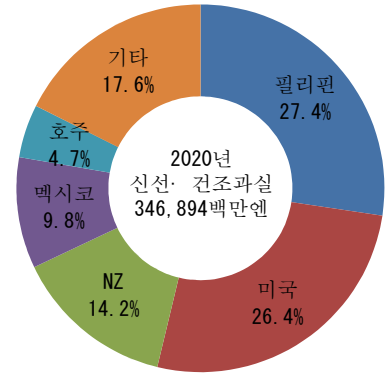


■신선·건조과실

(단위 : 백만엔)

순위	국가·지역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미국	95,094	90,998	99,845	98,416	95,001
2	필리핀	95,967	94,966	100,834	90,747	91,569
3	뉴질랜드	31,128	34,394	41,137	45,145	49,112
4	멕시코	28,681	30,183	30,498	35,512	33,891
5	호주	11,773	13,423	14,536	16,114	16,253
	기타	54,821	61,026	60,977	61,114	61,067
	합계	317,464	324,809	347,827	347,049	346,894

(출처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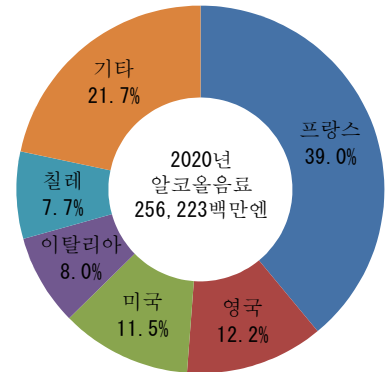


■알코올음료

(단위 : 백만엔)

순위	국가·지역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프랑스	97,581	107,888	115,263	122,624	99,946
2	영국	27,480	29,372	34,519	37,102	31,145
3	미국	27,717	28,659	30,688	34,472	29,442
4	이탈리아	21,021	23,269	22,859	24,817	20,515
5	칠레	21,392	24,084	22,379	21,311	19,658
	기타	71,446	73,491	66,844	65,271	55,516
	합계	266,637	286,763	292,552	305,597	256,223

(출처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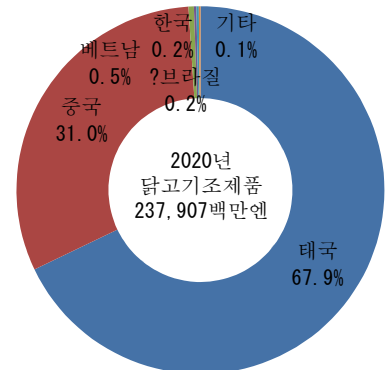


■닭고기조제품

(단위 : 백만엔)

순위	국가·지역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태국	132,972	157,918	165,343	170,105	161,553
2	중국	75,496	92,674	99,891	90,980	73,853
3	베트남	-	56	664	1,164	1,145
4	브라질	589	835	392	493	519
5	한국	415	463	500	366	511
	기타	276	189	260	665	327
	합계	209,748	252,135	267,049	263,773	237,907

(출처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2) 한국과의 농식품 수출입 현황

①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 한국으로의 2019년 농림수산물 수출은 농산물 324억26백만 엔, 임산물 32억10백만 엔, 수산물 145억7백만 엔이며, 농림수산물 합계는 전년대비 79.0%인 501억44백만 엔으로 큰 감소세를 보임
- 품목별로는 「알코올음료」가 가장 많으나, 2019년은 전년대비 55.6%인 61억51백만 엔으로, 절반으로 감소했음
- 농산물에서는 「소스혼합조미료」가 33억78백만 엔으로, 「알코올음료」다음으로 수출액이 높음. 기타에서는 「펫푸드」 16억77백만 엔, 「수프 브로스」 13억22백만 엔, 「과자(쌀과자 제외)」 11억65백만 엔, 「과중용 씨앗 등」이 10억2백만 엔이었으나, 2020년은 모두 수출이 감소함

< 한국으로의 농림수산물 수출실적(2014~2019년) >

(단위 : 천엔)

주요 품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림수산물 계	40,877,361	50,062,459	51,125,559	59,669,422	63,479,450	50,144,099
농산물	27,136,006	31,417,310	32,050,981	39,453,768	44,021,477	32,426,066
임산물	3,427,266	4,442,564	3,690,512	4,097,447	3,584,021	3,210,445
수산물	10,314,089	14,202,585	15,384,066	16,118,207	15,873,952	14,507,588
알코올음료	4,952,502	6,498,183	7,555,047	10,752,633	11,065,902	6,151,493
소스혼합조미료	2,157,177	2,665,304	2,888,257	3,318,537	3,950,150	3,377,669
가리비류(신선·냉장·냉동·엽장·건조)	2,189,121	3,336,719	3,502,830	3,554,650	3,097,393	2,803,518
도미(활어·신선·냉장·냉동)	1,429,276	1,718,713	2,307,125	2,144,644	3,108,495	2,285,736
펫푸드	133,816	200,281	637,509	1,252,740	1,835,026	1,677,165
통나무	1,756,998	2,493,134	1,896,626	2,311,759	1,938,468	1,632,432
수프 브로스	891,715	980,258	1,399,480	1,847,467	2,536,962	1,322,249
명게(활어·신선·냉장)	456,220	782,460	840,526	1,104,772	775,704	1,193,010
과자(쌀과자 제외)	1,020,387	1,242,023	1,627,532	2,620,693	2,290,976	1,165,263
파종용 씨앗 등	1,449,696	1,443,080	1,354,295	1,235,453	1,455,964	1,002,438

※ 농림수산물 수출입액(2019년) 중 금액상위 10품목 (출처: 농림수산성 「양국간무역실적」)

②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 2019년 한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 2,072억8백만 엔, 임산물 16억69백만 엔, 수산물 802억48백만 엔, 농림수산물 합계로는 전년대비 104.0%인 2,891억27백만 엔으로, 2016년은 축소했으나, 수출액은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담배」가 1,102억63백만 엔으로 가장 수입액이 높고, 다음으로 「가다랑어·참치류(신선·냉장·냉동)」이 171억12백만 엔, 「알코올음료」가 146억15백만 엔 순임

< 한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실적(2014~2019년) >

(단위 : 천엔)

주요 품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림수산물 계	223,095,657	232,537,068	227,667,909	273,498,696	277,858,474	289,126,567
농산물	135,171,366	146,432,262	142,483,704	181,131,436	191,140,275	207,208,607
임산물	2,484,382	2,100,037	2,136,911	2,122,516	2,028,284	1,669,493
수산물	85,439,909	84,004,769	83,047,294	90,244,744	84,689,915	80,248,467
담배	20,264,350	34,883,555	42,298,986	75,784,930	92,399,474	110,263,177
가다랑어·참치류(신선·냉장·냉동)	22,399,411	19,889,150	20,373,707	20,279,069	19,898,840	17,112,375
알코올음료	32,009,327	30,263,911	26,045,698	24,112,966	18,497,417	14,615,389
신선채소	10,998,427	12,282,287	12,543,029	12,527,072	13,466,490	12,655,515
가당조제식료품	11,581,751	13,554,520	12,426,878	13,722,437	12,711,463	11,494,379
김	2,297,092	2,479,572	3,932,084	7,083,350	5,934,800	6,169,823
기타 조제채소	5,966,671	5,530,973	5,273,389	5,287,491	6,321,189	6,159,661
전복(활어·신선·냉장·냉동)	4,852,974	4,602,315	5,104,000	5,402,137	5,185,297	5,529,761
굴(활어·신선·냉장·냉동)	2,872,069	6,209,984	1,967,479	2,090,623	2,718,654	3,156,301
바지락(활어·신선·냉장·냉동)	2,550,032	3,121,525	4,058,114	3,603,951	2,552,074	2,868,228

※ 농림수산물 수출입액(2019년) 중 금액상위 10품목 (출처: 농림수산성 「양국간무역실적」)

2. 농식품 시장현황

가. 시장개요

(1) 시장규모 및 특징

① 신선식품시장

■ 시장동향

- 2019년 신선식품 전문점의 판매규모(청과전문점, 정육점, 닭고기·달걀전문점, 생선 전문점 합계)는 전년대비 99.6%인 2조4,200억 엔으로 약간 감소했음(야노경제연구소 추계)
- 소비자층의 신선식품 주요 구입처가 식품슈퍼마켓 등 양판점인 상황은 변함이 없으며, 양판점에 대항할 수 있는 저가격 설정 및 대량 출점을 계속할 수 있는 일부 대형 체인을 제외하고는 집객에 고전하고 있음
- 정육 및 청과, 생선 등 각종 신선식품 전문점의 경우, 옛날 채소가게나 생선가게와 같이 시장에서 개인 가게를 운영하는 업태는 매년 사라지고 있음
- 반면, 전국 전개를 하는 사업자는 대부분이 백화점이나 상업시설에서의 출점으로 점포수를 확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새로운 수익원 확대를 위해, 전문점이 입점한 시설 내에서 점포에서 취급하는 정육이나 생선으로 만든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음
- 신선식품 유통의 경우, 점포망의 규모 및 집객력의 차이로 인해 이전부터 식품슈퍼마켓 등의 양판점이 전문점의 위협이 되어왔음. 2018년 이후 이러한 경쟁 속에 있는 소매업자에게, 최근 식품류의 취급을 확대하고 있는 드러그스토어 체인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임
- 넷슈퍼¹⁾ 등의 신선식품 전자상거래에서는 2020년 이후 대기업의 본격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참여가 잇따르고 있어, 전문점과의 경쟁이 되고 있음. 라구텐(楽天)은 세이유(西友)에 출자하여, 공동 운영하는 넷슈퍼 사업인 「라쿠텐세이유넷슈퍼」를 개시함. 아마존은 대형 슈퍼마켓인 라이프와 협업하여 동사의 사이트에서 라이프의 넷슈퍼 서비스를 개시함

■ 청과물의 출하량 추이

- 농림수산성의 통계에 의하면, 채소의 출하량은 2019년에 649.3만 톤으로, 최근 5년(2015~2019년)간 전년대비 평균치는 100.5%로 약간 증가 추세임
- 과수의 출하량은 2019년에 210.9만 톤으로, 최근 5년간 전년대비 평균치는 96.9%로 감소 추세임
- 최근 5년간 전년대비 평균치는 채소의 경우 대부분이 100%대로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파는 103.8%로 증가율이 높음
- 과수의 경우는 대부분의 과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출하량은 적지만 서양배가 104.1%, 파인애플이 101.3%, 비파가 103.4%로 증가하고 있음

1) 넷슈퍼 : 식품, 일상용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당일 혹은 단시간에 집까지 배달하는 서비스

< 채소의 출하량 추이 >

(단위 : 천t)

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최근 5년 전년대비 평균치
합계	6,374	6,181	6,287	6,369	6,493	100.5%
감자	1,607	1,461	1,612	1,715	1,636	100.2%
양파	1,033	1,017	1,001	947	1,104	103.8%
양배추	809	811	780	807	824	100.4%
무	497	469	459	462	468	98.5%
양상추	437	453	427	449	446	100.2%
토마토	424	436	433	431	433	100.0%
배추	416	414	419	422	420	100.1%
당근	428	387	414	401	416	99.7%
오이	314	317	325	317	319	100.7%
가지	134	137	143	141	143	100.5%
파	113	111	113	115	118	101.0%
피망	87	91	92	91	94	100.7%
시금치	55	57	53	57	57	100.2%
토란	21	21	16	15	15	92.1%

※최근 5년은 2015년~2019년

(출처 : 농림수산성 「작물통계」)

< 과수의 출하량 추이 >

(단위 : 천t)

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최근 5년 전년대비 평균치
합계	2,306	2,291	2,195	2,227	2,109	96.9%
밀감	684	718	661	691	668	97.2%
사과	728	685	656	680	633	97.2%
일본배	228	228	227	214	194	95.2%
감	199	192	186	172	175	97.6%
포도	165	164	162	162	161	98.5%
복숭아	111	117	115	104	100	95.6%
매실	85	81	76	99	78	97.1%
서양배	26	27	26	24	26	104.1%
키위후르츠	24	22	26	22	23	97.2%
자두	19	20	17	20	16	97.2%
앵두	16	18	17	16	14	96.9%
밤	12	12	15	13	13	96.4%
파인애플	8	8	8	7	7	101.3%
비파	3	2	3	2	3	103.4%

※최근 5년은 2015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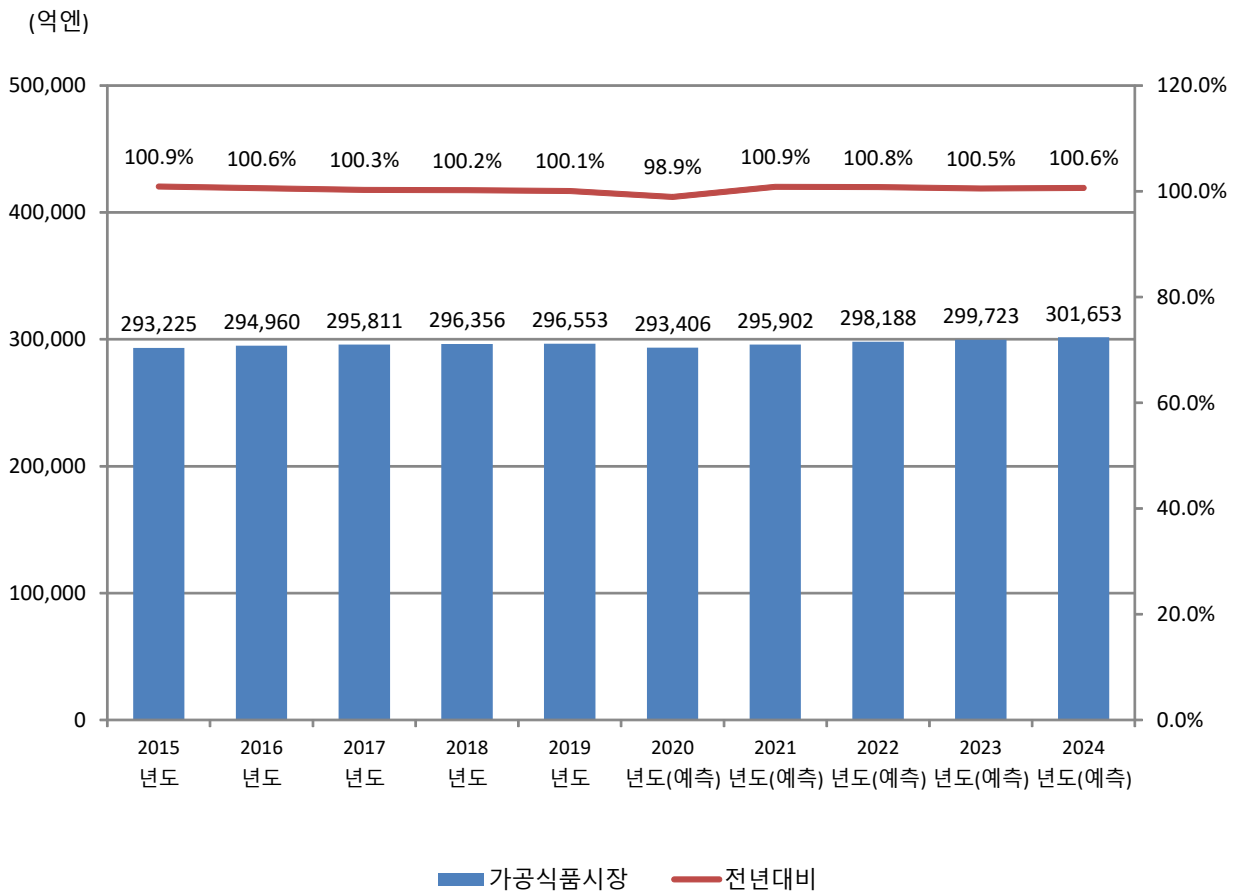
(출처 : 농림수산성 「작물통계」)

② 가공식품시장

■ 시장동향

- 가공식품시장(메이커 출하금액 기준)의 2019년도 시장규모는 전년도대비 100.1%인 29조6,553억 엔이었음. 가공식품시장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령화 및 고령가구의 증가로, 조리의 간편화 및 시간단축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은 착실히 확대되고 있지만, 매년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음
- 가공식품시장(메이커 출하금액 기준)은 2024년도에 30조1,653억 엔으로 예측됨. 2020년도는 COVID-19의 영향으로 호조세를 보인 카테고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불안 요소도 있어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임. 특히 외출자제로 인해 외식용인 업무용 식품은 수요가 크게 줄었음. 재택근무가 진행되어 업무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편의점이 고전하고 있으며, 편의점 매출의 중심 상품(소포장과자, 껌, 태블릿캔디 등)은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임
- 중장기적으로 보면, 고령화사회 진행 및 소가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식품시장 및 고령자 대응 식품시장의 확대, 1인용 타입의 상품군이 신장하고, 간편지향이 강해지면서 조리식품시장 등이 호조세를 보일 것임

<가공식품 시장규모 추이(2015~2019년도) 및 예측(2020~2024년도)>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추계)

※메이커 출하금액 기준

■ 가공식품시장의 구성비

- 카테고리별 2019년도의 시장규모 구성비는 메이커 출하금액 기준으로 음료가 18.7%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과자 13.5%, 주류가 11.4%를 차지함

<카테고리별 시장규모 추이 및 구성비>

(단위: 억엔)

항목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최근5년의 전년대비 평균치	2019년도 시장 구성비
음료	54,793	54,982	55,663	55,719	56,092	55,540	—	18.7%
전년대대비		100.3%	101.2%	100.1%	100.7%	99.0%	100.3%	
과자류	37,442	38,632	39,433	39,700	39,867	39,956	—	13.5%
전년대대비		103.2%	102.1%	100.7%	100.4%	100.2%	101.3%	
주류	34,763	34,809	34,610	34,503	34,088	33,870	—	11.4%
전년대대비		100.1%	99.4%	99.7%	98.8%	99.4%	99.5%	
빵·면류	23,736	24,365	24,566	24,768	24,960	25,684	—	8.7%
전년대대비		102.6%	100.8%	100.8%	100.8%	102.9%	101.6%	
냉동식품	12,930	13,145	13,400	13,700	13,906	14,115	—	4.8%
전년대대비		101.7%	101.9%	102.2%	101.5%	101.5%	101.8%	
조미료류	12,405	12,474	12,585	12,609	12,513	12,530	—	4.2%
전년대대비		100.6%	100.9%	100.2%	99.2%	100.1%	100.2%	
수산가공품	8,539	8,653	8,595	8,602	8,786	8,786	—	3.0%
전년대대비		101.3%	99.3%	100.1%	102.1%	100.0%	100.6%	
농산가공품	6,765	6,757	6,707	6,675	6,970	6,909	—	2.3%
전년대대비		99.9%	99.3%	99.5%	104.4%	99.1%	100.4%	
식육가공품	6,862	6,661	6,666	6,617	6,375	6,483	—	2.2%
전년대대비		97.1%	100.1%	99.3%	96.3%	101.7%	98.9%	
유제품	5,029	5,180	5,172	5,235	5,426	5,388	—	1.8%
전년대대비		103.0%	99.8%	101.2%	103.6%	99.3%	101.4%	
건강식품	4,481	4,710	4,923	5,012	5,098	5,266	—	1.8%
전년대대비		105.1%	104.5%	101.8%	101.7%	103.3%	103.3%	
인스턴트식품·레토르트식품	5,111	5,220	5,247	5,329	5,281	5,208	—	1.8%
전년대대비		102.1%	100.5%	101.6%	99.1%	98.6%	100.4%	
설탕·감미료류	3,268	3,270	3,208	3,147	3,004	2,930	—	1.0%
전년대대비		100.1%	98.1%	98.1%	95.4%	97.5%	97.8%	
유지가공품	2,205	2,229	2,221	2,215	2,247	2,251	—	0.8%
전년대대비		101.1%	99.6%	99.7%	101.4%	100.2%	100.4%	
밀가루류·가루제품	963	974	979	988	958	974	—	0.3%
전년대대비		101.2%	100.5%	100.9%	97.0%	101.7%	100.2%	
기타	71,364	71,162	70,985	70,993	70,786	70,664	—	23.8%
전년대대비		99.7%	99.8%	100.0%	99.7%	99.8%	99.8%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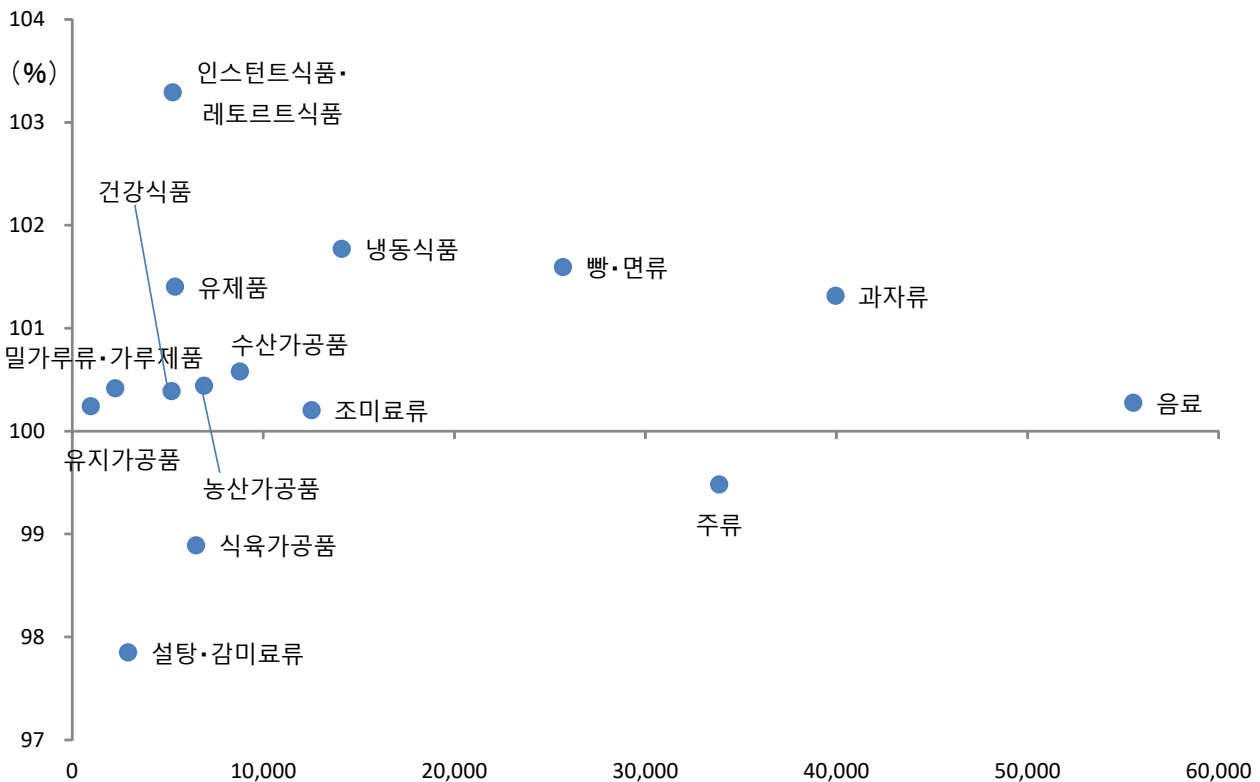
■ 주요 카테고리별 시장동향

- 가장 시장규모가 큰 카테고리는 음료인데, 최근 5년간 전년대비 평균치는 100.3%로 거의 변화가 없음
- 주목되는 것은 인스턴트식품·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빵·면류, 간편성이 높은 카테고리와 건강의식 고조로 건강식품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임. 건강지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분을 자제하는 움직임도 보여, 설탕 및 감미료류의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인스턴트식품·레토르트식품을 비롯 간편지향 및 개식화(solo dining) 대응에 따라 호조세인 카테고리가 많음. 또한 레토르트 쌀밥·죽, 즉석밥은 최근 몇 년간 대지진 및 호우, 대형 대풍강습 등, 전국 각지에서 재해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해비축 수요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냉동식품은 최근 간편성, 보존성이 높아, 냉동피자·그라탱 이외의 카테고리에서는 신장세를 보임. COVID-19의 영향으로 비축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2019년도의 시판용은 특히 호조세를 보임
- 빵·면류는 파스타류(시판용) 및 즉석면류(컵면)가 원래 약간 증가세에 있었는데, 특히 2019년도는 COVID-19의 영향으로 보존성과 간편성이 뛰어난 두 시장이 크게 신장했음. 빵은 2016년 이후 「고급식빵」과 대형 홀세일 메이커의 「메가식빵²⁾」리뉴얼 등, 시장을 견인하는 상품의 존재감이 높아진 것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음.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아침식사를 하는 소비자가 증가해 식빵 및 모닝롤빵이 호조세를 보였음

< 카테고리별 시장동향 분포도 >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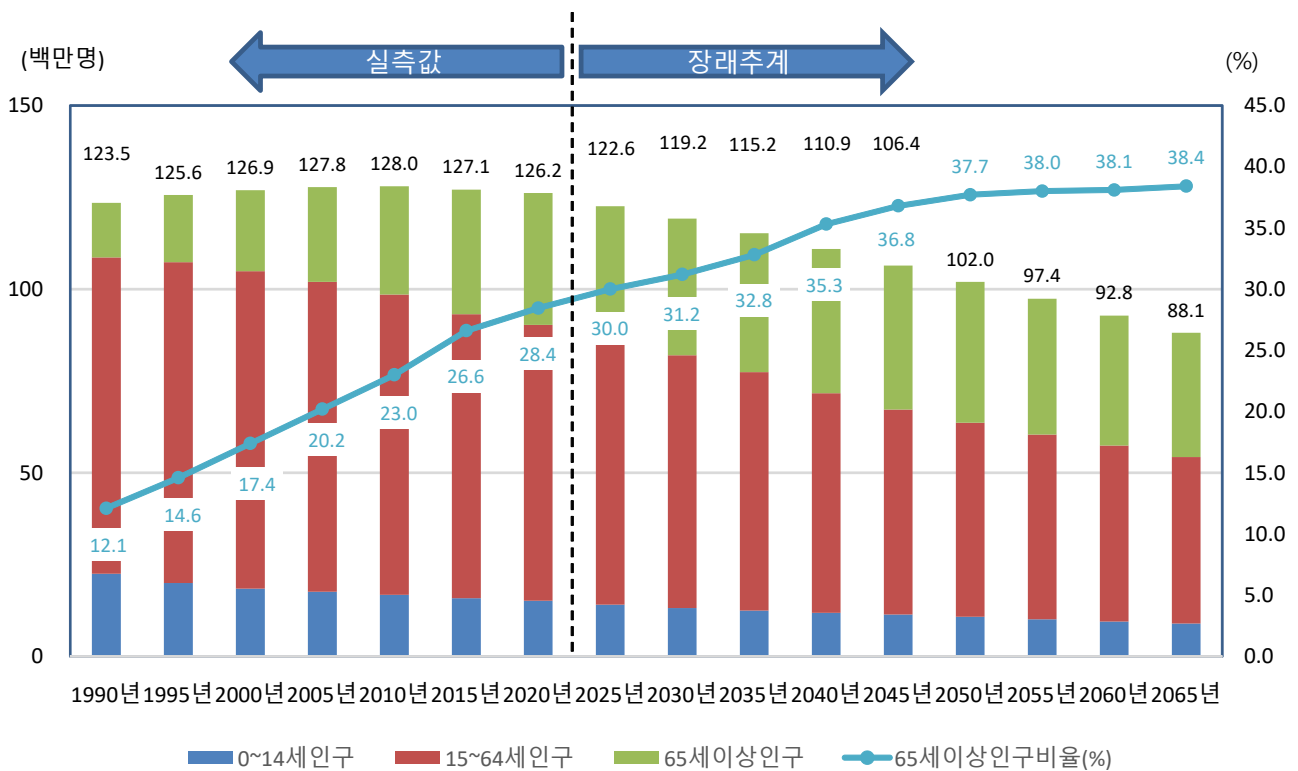
※세로축은 「최근 5년간의 전년대비 평균치」
 가로축은 「2019년도 시장규모(메이커 출하금액 기준)」

2) 메가식빵: 대기업인 파스코의 초췌쿠(超熟), 야마자키제빵의 초호준(超芳醇), 후지빵의 혼지코미(本仕込み)를 가리킴

(2) 소비인구 및 특성

- 일본은 저출산화가 진행되어 인구감소 국면을 맞이한 반면, 평균수명은 늘어남에 따라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는 향후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소비생활도 변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의 소비활동 확대 및 고령자용 상품·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만혼 및 미혼의 증가, 핵가족화 등에 따라 소가구화가 진행되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음
- 소가구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맞벌이가구의 증가를 배경으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하고 있어, 손쉽게 살 수 있는 편의점이나 드러그스토어 등의 이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식이나 조리식품을 구입하는 외식적 내식(中食)³⁾이 증가하고 있음

<일본의 인구 추이>



※총무성 「국세조사보고」 및 「인구추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인구 (2017년 추계)」를 토대로 작성

※실측치는 각 년도 10월1일 현재 기준

※장래 추계는 출생 중위(사망 중위) 추계 이용

3) 외식적 내식(中食): 외부에서 조리된 식품을 구입하거나 배달시켜 가정 내에서 먹는 식사 형태

나. 시장 트렌드

(1) 주요 소비 트렌드

① COVID-19에 의한 식료품 지출의 변화

- 총무성의 가계조사(전국 2인이상 가구)에 의하면, 2020년 식료품 지출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7만6,640엔이지만, 외식지출은 전년대비 24.7% 감소한 9,587엔으로 대폭 감소했음
- 반대로 COVID-19 영향으로 지출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항목은 면류(17.2% 증), 신선육(12.0% 증), 달걀(10.6% 증), 신선채소(10.5% 증), 과일가공품(12.0% 증), 유지(10.7% 증) 등을 들 수 있음
- 외식적 내식 형태인 조리식품도 전년대비 3.5% 증가하여 호조세임. 또한 주류도 전년대비 16.2%로 대폭 증가하여 「홉술」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② COVID-19로 성장이 기대되는 식품 카테고리 · 품목

- COVID-19 영향으로 「비축」 「아침식사」 「직접요리」 「홉술」 을 키워드로 한 식품시장이 신장하고 있음
- COVID-19 영향으로 쇼핑 횟수를 줄이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파스타류나 즉석면류를 비롯한 면류, 밀가루나 프리믹스, 냉동식품, 채소통조림, 과일통조림 등의 수요가 증가했음
- 재택근무 확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아침식사를 하는 소비자가 증가함. 따라서 빵류, 그중에서 식빵이나 모닝롤빵이 호조세임. 또한 잼이나 땅콩크림 · 초콜릿크림의 수요도 증가했음
- 평소보다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는 소비자가 증가해, 전분이나 튀김가루, 카라아게(唐揚げ)가루⁴⁾는 견조한 추이를 보임. 또한 과자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밀가루와 생크림, 마가린의 수요가 증가했음
- COVID-19 상황에서는 음주 모임을 자제하는 사람이 많고, 홉술을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주류는 저알코올음료가 호조세임. 안주가 되는 식품도 잘 팔리고 있어 치즈나 축육통조림 등이 호조세를 보임

③ 확대되는 식품 손실 대책

- 일본에서는 연간 약 600만 톤의 식품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계절상품의 대량 폐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등, 식품 손실 삭감 움직임이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음
- 여기에 호응하듯 대형 식품기업 및 소매를 중심으로 식품 손실 삭감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AI 및 IT를 활용한 대응과 푸드 셰어링 서비스 등, 식품 손실 삭감을 계기로 새로운 비즈니스도 생겨나고 있음
- 식품 손실 삭감은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신선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해당되며, 푸드 공급망 모든 영역에 요구되고 있어 CSR⁵⁾의 관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로서 주목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음

4) 카라아게(唐揚げ)가루: 식재료에 밀가루나 전분을 얇게 입혀 튀기는 요리인 카라아게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으로, 가루에 조미료 및 향신료가 첨가되어 있음

5)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2) 이슈 품목

① 식물육(植物肉)

<p>시장 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일본의 식물육 시장은 150~160억 엔 정도로, 2022년에는 250억 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 미국에서는 식물육 원료로 완두콩이나 병아리콩을 주로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대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대두는 일본인에게 친숙한 식재료 이면서 건강지향 식재료로서도 인지도와 친화성이 높음. - 일본에서는 현미와 대두를 함께 사용한 상품도 있음 - 식물육의 타깃 소비층은 우선 비건·채식주의자인데, 그 비율은 해외가 10%인 반면 일본은 몇 %에 불과함 - 일본에서 비건·채식주의자를 타깃으로 할 경우, 시장규모가 작아서 사업성이 없으므로, 식물육의 타깃으로 건강지향성이 높은 소비층의 포섭을 겨냥하는 메이커가 많음 - 식물육은 소매점에서의 상품 전개 및 외식 메뉴 도입 등이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됨
<p>인기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육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 유래 온실가스 배출 및 사료·수자원의 대량 이용 등, 축산업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경으로, 장기적으로 기존의 동물유래 육류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콩류나 채소 등을 원재료로 한 식물 유래육, 동물세포를 배양해 제조하는 배양육이 주목받고 있음

② 건강오일(Healthy Oil)

<p>시장 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오일에는 올리브유, 참기름, 쌀기름, 아마씨유, 들기름 등이 있으며, 모두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식용유 업계 전체적으로는 범용유의 품질이 거의 비슷해지는 문제도 있어, 건강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대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건강오일의 인지도는 향상되었지만, 들기름이나 아마씨유와 같은 새로운 기름은 아직 구입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많아,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대응도 보임
<p>인기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오일의 인지도가 확대되고, 소비자의 건강지향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오일이 튀기거나 볶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열 요리에 뿌리거나 그대로 먹는 새로운 섭취방법이 알려진 것이 인기의 배경에 있음

③ 발효식품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년 전부터 발효식품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레시피 사이트에서 발효식품의 검색 건수가 높아지는 등 적극적으로 발효식품을 섭취해 건강유지 및 면역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요구르트는 꾸준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드링크 요구르트는 「균활(菌活)⁶⁾」이 주목받기 시작한 2012년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균활 붐 속에서 손쉽게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식습관 생활에 정착하고 있음 - 낫토는 발효식품 붐이 계속되고, 소비자의 강력한 절약지향, 높은 건강기능성을 배경으로 9년 연속 시장이 확대되어, 2016년 이후 계속 과거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 전국낫토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업무용을 포함한 2020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2,711억 엔으로, 사상 최대 성장률을 기록함
인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 미용을 위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장활(腸活)⁷⁾」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등, 장내의 선옥균을 증가시키는 발효식품은 장활에 적합한 식재료로 주목받음 - COVID-19의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면역력 향상이 기대되는 발효식품이 다시 주목되면서 발효식품을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가정이 증가함 - 건강의식 고조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제까지는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던 된장이나 요구르트를 자택에서 직접 만드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음

④ 탄산수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산음료 중에서도 무가당 탄산수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크게 확대됨 - COVID-19로 인해 힘들었던 2020년도에도 시장규모는 전년도대비 104.3%인 480억 엔(야노경제연구소 추계)으로 호조세를 보이며, 계속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COVID-19로 재택시간 증가 및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향한 재충전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파악됨 - 또한 이자카야(居酒屋) 등의 영업시간 단축이나 휴업도 있어, 밖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줄어들고 자택에서 음주를 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재료로서의 이용도 증가함
-------	--

6) 균활(菌活): 유익균 섭취활동,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균을 식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

7) 장활(腸活):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장이 가진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활동

인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는 주로 알코올과 섞어 마시는 용도로 쓰였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물 대신 마시는 「스트레이트 음용(직접 음용)」이 정착되면서 음용 범위가 확대됨 - 직접 음용은 건강 이미지가 강하고, 알코올을 대체하는 다양한 음용 상황에 맞추기 쉬운 점이 인기를 끌고 있음
-------	--

⑤ 마리토쪼(Maritozzo)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토쪼」는 원래 이탈리아 로마의 전통과자로 브리오슈(빵)⁸⁾ 생지에 크림을 넣은 간단한 음식 - 마리토쪼는 2020년 가을경에 「KALDI」가 판매를 시작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짐 - 그 후 2021년 5월에는 대형 제빵기업인 야마자키제빵(山崎製パン)이 진출하는 등 현재는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편의점, 슈퍼마켓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되면서 사회적인 트렌드로 성장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과자빵 생지와 크림이라는 친숙한 소재로만 만드는 간단한 음식이지만, 현재는 전통적인 것부터 독특하게 변형한 것까지 다양한 종류를 즐길 수 있음
인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길을 끄는 모양, 빵과 생크림의 조합으로 맛을 상상하기 쉬운 점, 친숙한 재료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기의 요인 - 작고 둥글고 귀여운 형태가 사진을 잘 받는다는 점도 여성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 - 코로나 상황에서, 부담없는 가격으로 가볍게 테이크아웃 할 수 있고,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크기라는 것도 시대에 부합함 - 각 가게만의 독특한 변형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다양한 종류의 마리토쪼가 판매되고 있는 것도 유행의 배경임

8) 브리오슈(Brioche): 이스트를 넣은 빵 반죽에 버터와 달걀을 듬뿍 넣어, 고소하고 약간의 단맛이 나는 프랑스 전통 빵

다. 농식품 관련 정책

① 정부의 농업정책 동향

■ 미래투자전략 2018

- 일본정부는 2018년 6월15일, 임시 각의에서 성장전략으로서 「미래투자전략 2018」을 결정했음. 「미래투자전략 2018」에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Society 5.0」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견실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의 재구축 및 새로운 틀의 도입을 도모함
- 「Society 5.0」은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에 이어 인류 역사상 다섯 번째의 새로운 사회를 가리킴

< 「Society 5.0」를 향한 대응(농업분야)>

지향해야 할 사회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회 인프라인 「데이터활용기반」의 생성이 민관 연계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음. 2020년까지의 집중추진기간을 계기로, 정부·지방공공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이용과 기업의 테두리를 초월한 데이터 연계가 현격히 진행되어, 민관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있음 - 민간과의 직접 대화로 니즈에 의해 공개된 데이터는 100% 기계판독에 적합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데이터를 활용한 일본발 제품 및 서비스가 국제 표준이 되어 국내외의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음
농업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농가의 지식, 생육상황 및 기상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신규 참여자도 맛있고 안전한 작물을 수확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을 통해 돈이 되는 농업이 확산되고 있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주요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기관 등이 보유한 농업, 지도, 기상 등의 정보의 오픈화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농업데이터연계기반」을 올해 안에 실시, 데이터에 근거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이 높은 농업현장 구현을 추진함 - 농업생산 자재의 가격인하와 농업 및 생산자재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생산자재 업계의 재편 등을 추진함. 농림수산물 등의 유통·가공의 구조 개선을 위해, 중간 유통의 근본적인 합리화를 포함한 사업·업계의 재편 등을 추진함 - 농업분야에서 지역의 경제계와 연계하여 경영개선 및 인재매칭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영농을 하면서 본격적인 경영을 배우는 장인농업경영학원을 2018년에 20현 정도에 개강 예정임 - 산학관에 의한 기상비즈니스추진 컨소시엄 등을 통해, 전력, 관광, 유통, 보험, 농업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여 새로운 기상 비즈니스를 강력히 창출하기 위해, 기초적인 기상관측 및 예측 데이터의 공개를 진행함과 동시에 2018년 중에 필요한 제도를 검토할 예정임

(출처 : 내각관방 내각홍보실)

② 「식품 손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

- 식품 손실 삭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SDGs 액션플랜」에서, 가정에서의 식품 손실 삭감 대응을 위한 보급계발 및 식품산업에 대한 푸드뱅크 활동 추진, 서플라이체인 상관습 재검토 지원 등 식품 폐기물 삭감 및 활용을 위한 대응을 시작함
- 또한 식품 손실 삭감에 대해, 정부·지방공공단체·사업자의 책임, 소비자의 역할, 관계자와의 상호 연계협력에 대해 규정한 일본 최초의 식품 손실에 관한 법률인 「식품 손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 손실 삭감 추진법)이 2019년 5월에 공포되어, 동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음
- 「식품 손실 삭감 추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식품 손실 삭감에 관련된 시책이 관계 행정기관의 상호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된 관계부처 회의가 개최되고 있음

3. 농식품 유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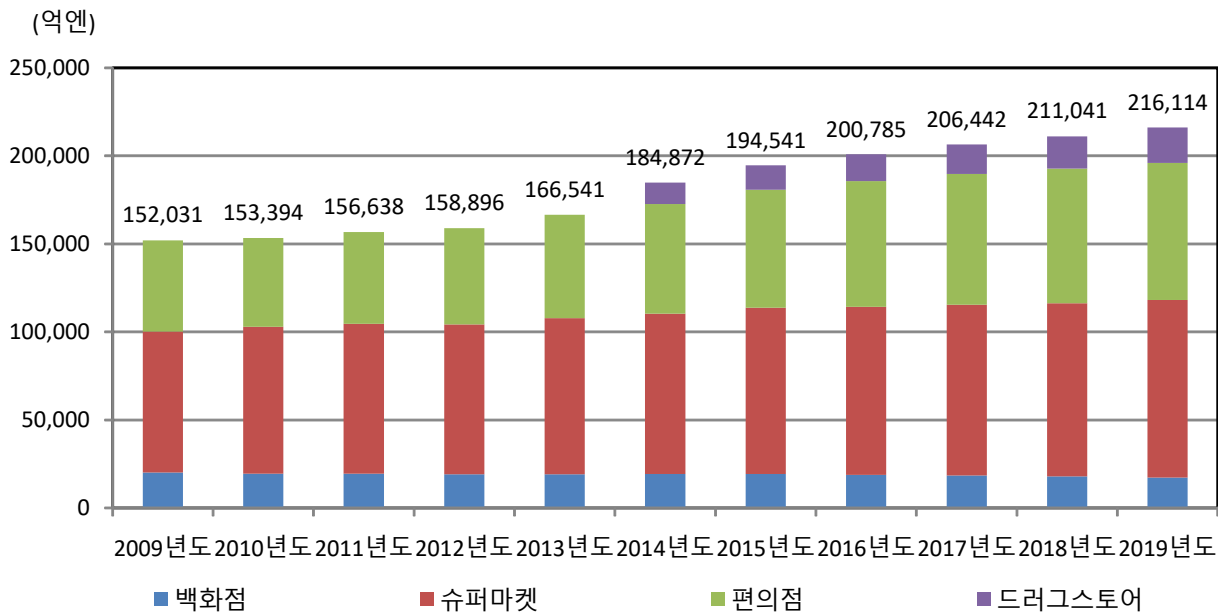
가. 유통현황 및 특징

(1) 유통현황

①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규모

- 2019년도 오프라인 유통 시장규모(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드러그스토어의 식료품 매출액 합계)는 전년도대비 102.4%인 21조6,114억 엔으로 확대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 백화점은 축소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식료품 매출이 높은 슈퍼마켓, 편의점은 점포수의 증가로 착실히 매출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드러그스토어가 식품판매에 주력하고 있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2020년도는 COVID-19로 인해 슈퍼마켓, 드러그스토어가 신장하는 한편, 편의점이 저조한 추이를 보이는 등 판매채널의 명암이 엇갈렸음

< 오프라인 유통 시장규모(매출액) 추이(2009~2019년도) >



(출처: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를 토대로 야노경제연구소 작성)

※ 시장규모는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드러그스토어의 식료품 매출액 합계

※ 드러그스토어 통계는 2014년부터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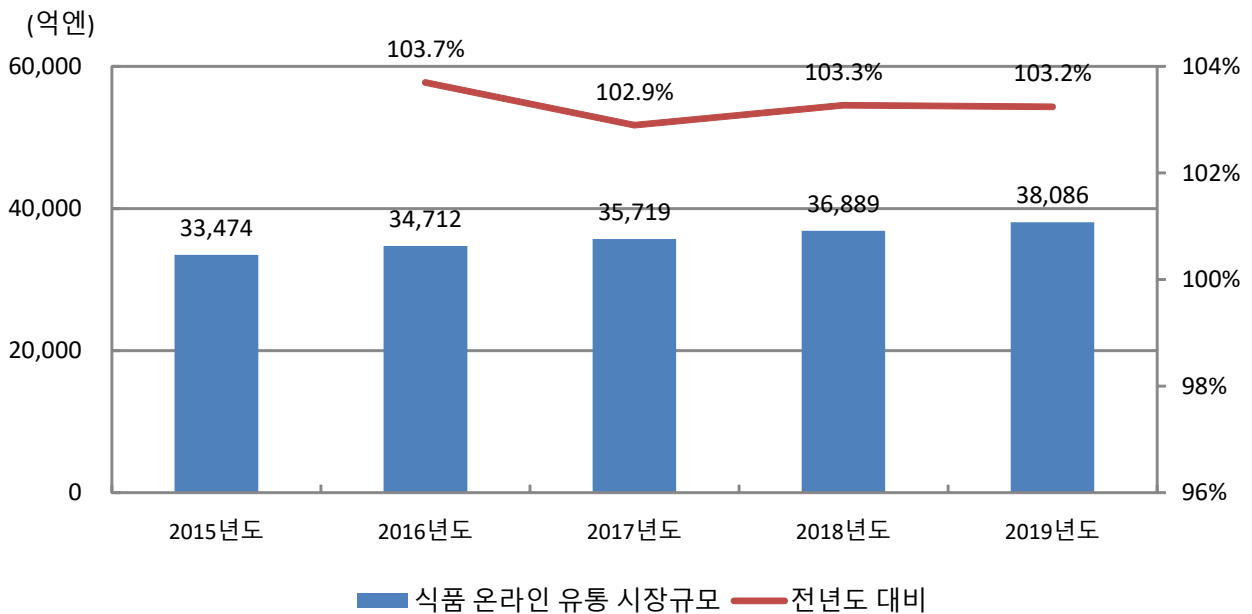
② 온라인 유통시장의 규모

- 2019년도 식품 온라인 유통시장의 총 시장규모는 전년도대비 3.2% 증가한 3조8,086억 엔으로 추계됨
- 2019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전년도 전반기, 특히 여름철 기온이 낮아 7월 말까지 저기온인 날이 계속됨에 따라 음료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었으며,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해 재난비축을 목적으로 대량구매 및 사재기가 있었고, 10월의 소비세

10% 도입됨에 따라 주류의 경우 9월에 선구매 수요가 있었던 반면, 10월 이후는 고전을 면치 못했던 점, 증세 후의 절약지향으로 내식화가 진행된 점,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결산기를 맞이하는 2020년 2~3월에 COVID-19로 인해 내식화 및 외출자제, 식료품 사재기 등이 발생한 것을 들 수 있음

- 식품 통신판매 시장은 확대세가 이어져 일정 수요까지는 신장했으나, 더 이상의 성장 요소가 부족하던 상황(약간의 포화상태)에서,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음

<식품 온라인 유통 시장규모 추이(2015~2019년도) >



(출처: 야노경제연구소 추계)

※식품 통신판매는 쇼핑 사이트(카달로그 포함), 생협(그룹배송(班配)⁹⁾ + 개인배송(個配)¹⁰⁾, 유기농 식품배송, 인터넷 슈퍼마켓, 메이커 직판을 합산한 수치임

(2)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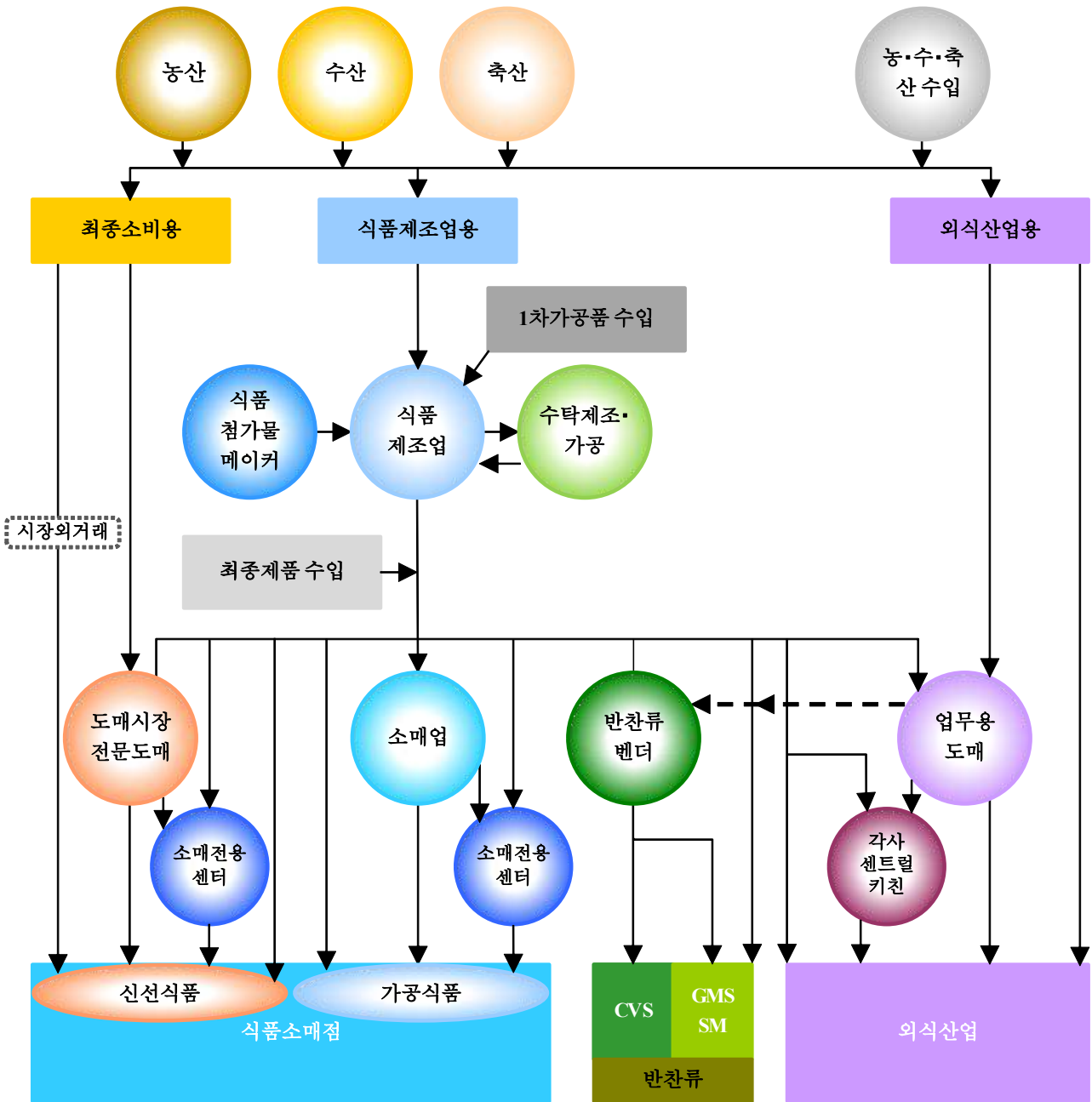
① 일본의 식품유통 개요

- 일본의 식품유통은 복잡하며, 그것이 외자계 소매업의 일본시장에서의 사업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진입 후 철수단계를 밟는 외자 소매를 많이 볼 수 있음
- 소매기업은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음
- 최근 대부분의 대형 소매기업이 직접거래로 농산물 조달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형 농업생산법인 및 JA(농업협동조합)와 제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대형 외식기업은 저가의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국산을 중심으로 수입농산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산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함

9) 그룹배송(班配):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그룹을 만들어 주문하고, 매주 지정한 요일, 시간, 장소에 배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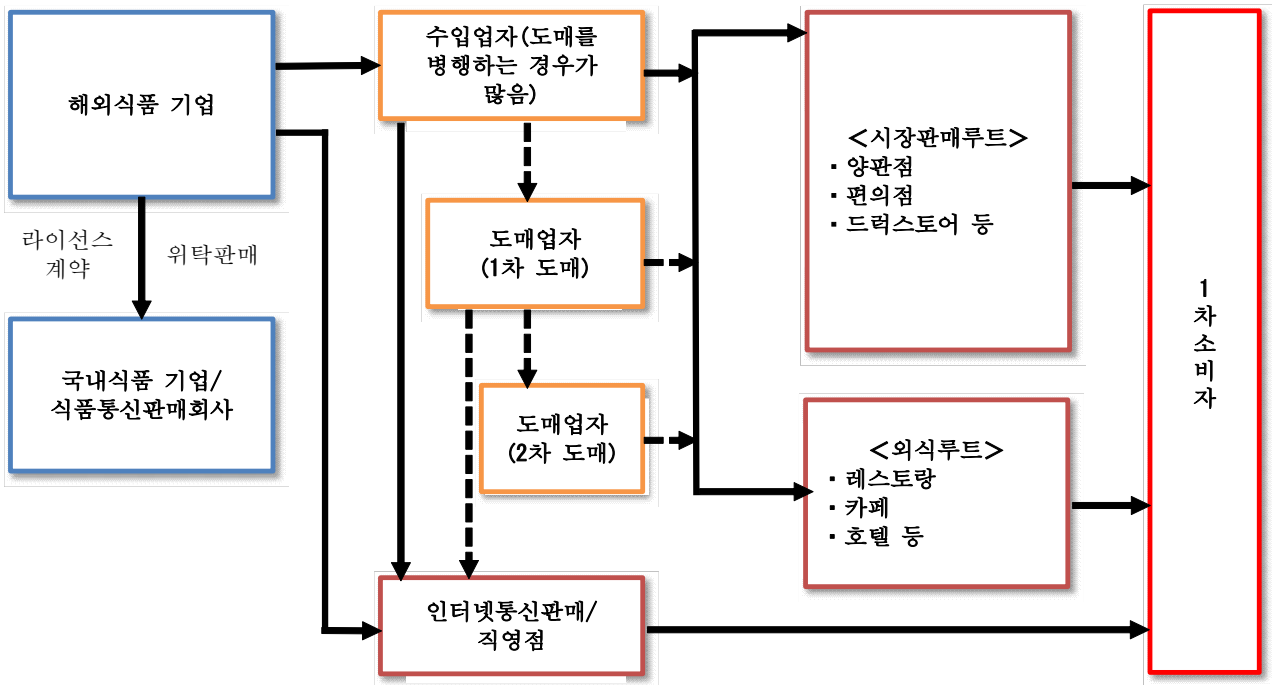
10) 개인배송(個配): 구입한 물건을 수취인의 현관까지 배달함

<식품의 주요 유통경로>



- 수입식품은 수입업자를 경유해 일본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기본적으로는 수입업자가 양판점 등과 교섭하여 판매하지만, 일본의 도매업자를 경유해 판매하는 경우도 일부 있음
- 또한 일본의 식품기업과 식품판매회사가 위탁판매나 라이선스 계약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 기타, 최근에는 인터넷 통신판매를 경유한 판매도 증가세에 있으며, 기업 및 도매를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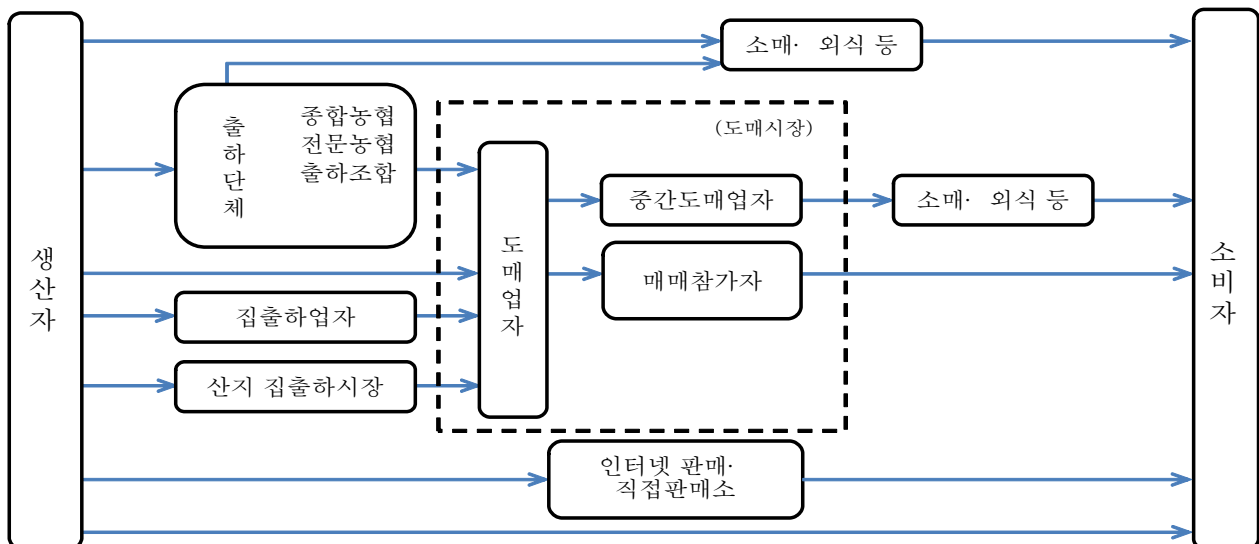
<수입식품의 주요 유통경로>



② 농산물의 유통경로 개요

- 일본의 청과물 유통은 주로 시장유통과 시장의 유통으로 나누어짐
- 시장유통은 JA(농업협동조합) 등에서 도매시장을 통해 도매업자가 중간도매업자, 매매참가자의 매입, 소매·외식 등의 수요자에게 판매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시장의 유통은 소매 등의 수요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와 계약재배 외, 인터넷 판매, 직매장의 직접판매가 존재함
- 신선채소 등은 시장의 유통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일부에서는 도매를 거치지 않고 직접거래를 확대하는 소매업의 움직임도 있음

<농산물 유통경로 개요도>



(출처 : 농림수산성)

나. 주요 유통채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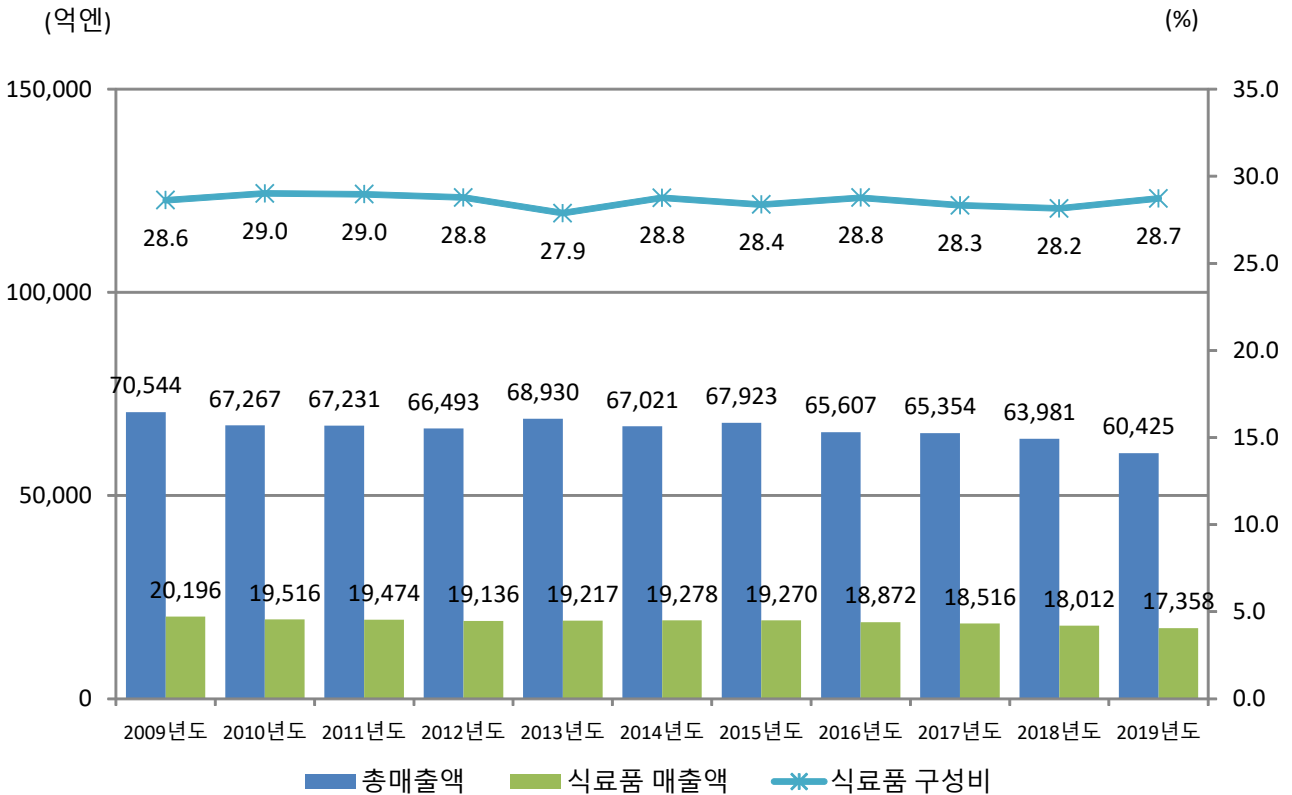
(1) 오프라인 유통채널

① 백화점

■ 매출액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에 의하면, 2019년도의 백화점 총매출액은 전년도 대비¹¹⁾ 94.4%인 6조425억 엔으로, 2015년에 전년도보다 증가로 돌아섰으나, 2016년도 이후는 다시 감소로 전환됨
- 식료품 매출액도 2019년도가 전년도대비 96.3%인 1조7,358억 엔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
- 백화점 각 사는 장소 대여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탈 백화점형」이나 백화점에서 상품기획 및 상품 구성을 결정해, 기존의 매장을 더욱 강화하는 「매장 확충형」 등의 전략을 펼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착수해왔으나, COVID-19로 인해 오프라인 점포의 집객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략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

< 백화점 시장규모(매출액) 추이(2009~2019년도) >



(출처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를 토대로 야노경제연구소 작성)

11) 전년도: 전년 사업년도를 나타냄(2018.4~2019.3)

■ 점포수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에 의하면, 2019년도 백화점의 점포수는 전년도보다 10점포가 감소한 210점포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백화점은 부유층 및 인바운드 수요가 받쳐주었는데, 혜택을 받은 곳은 도심 및 수도권인 점포로, 지방이나 교외점은 계속 적자로 폐점이 잇따르고 있음
- 지방은 좀처럼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주 고객인 교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절약지향이 강해 백화점으로 발길이 향하지 않고 있음

< 백화점 점포수 추이(2009~2019년도) >

(단위 : 점포,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점포수	285	269	262	256	253	248
전년대비	92.8	94.4	97.4	97.7	98.8	98.0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09년도대비
점포수	243	236	229	220	210	-75
전년대비	98.0	97.1	97.0	96.1	95.5	73.7

(출처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를 토대로 야노경제연구소 작성)

② 슈퍼마켓

■ 매출액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에 의하면, 2019년도 슈퍼마켓(GMS¹²) 및 SM¹³)의 총매출액은 전년도대비 101.1%인 13조3,032억 엔으로 3년 연속 확대세를 보임
- 식료품 매출액은 매년 확대 추세로, 2019년도는 전년도대비 102.4%인 10조723억 엔으로 10조 엔대를 돌파했으며, 총매출액은 보합 추이를 보인 반면, 식료품의 매출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음
- 총매출액에 대한 식료품 매출액 구성비는 2009년에 63.9%였으나, 2019년에는 75.7%까지 확대됨
- 2020년도는 COVID-19의 확산으로 외출자제 및 재택근무 확대로 「집콕 소비」가 늘어 식료품 판매가 호조였음
- 일본의 슈퍼마켓은 식품의 매출 비중이 높아져, 업계에서도 식품분야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음. 특히 최근에는 신규 출점에 의한 점포 수의 증가, 맞벌이 및 고령화 세대 증가에 따른 「반찬 수요 증가」로 반찬부문을 강화하는 추세임
- 소비자는 디스플레이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적인 소비는 절약지향을 강화하고 있음. 그 가운데 PB상품¹⁴)은 일반적인 NB상품¹⁵)에 비해 높은 매출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상품에 독창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브랜드 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슈퍼마켓 각 사가 힘을 쏟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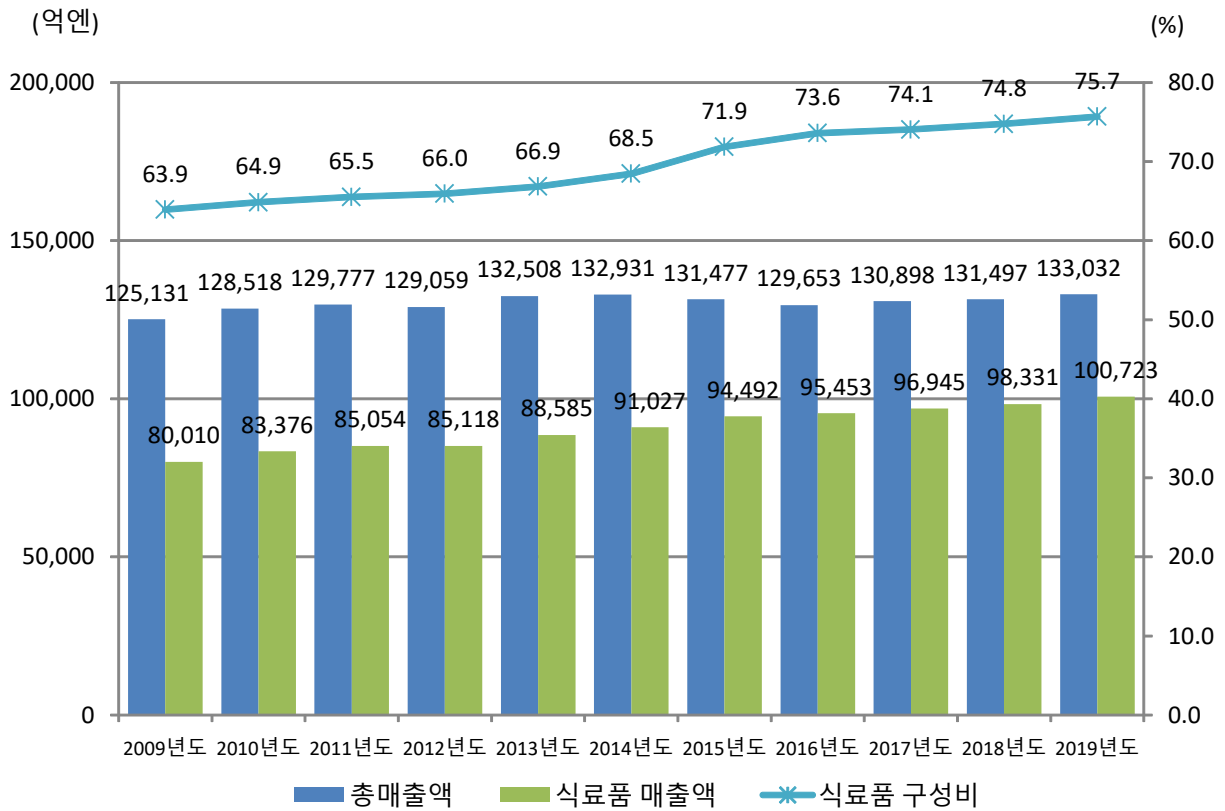
12) GMS(General Merchandise Store: 종합소매점) : 식품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대규모 소매점

13) SM(Super Market) : 식료품 및 잡화를 중심으로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되는 저가 소매점

14) PB상품 : Private Brand의 약자로 소매업자가 기업과 제휴하여 독자적으로 기획한 브랜드 상품

15) NB상품 : National Brand의 약자로, 전국규모(National)로 판매하는 기업의 브랜드 상품

<슈퍼마켓 시장규모(매출액) 추이(2009~2019년도) >



(출처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 를 토대로 야노경제연구소 작성)

■ 점포수

- 슈퍼마켓의 점포수는 2015년도에 크게 한번 감소한 후로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9년도는 전년도대비 783점포가 증가한 5,770점포로 크게 증가함
- 향후 종합슈퍼마켓(GMS)·식품슈퍼마켓(SM) 업계는 물류업무의 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및 종업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인사체제로의 전환 등,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임. 특히 GMS 업체는 변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 점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전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슈퍼마켓 점포수 추이(2009~2019년도)>

(단위 : 점포,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점포수	4,391	4,689	4,772	4,882	5,049	5,128
전년대비	102.9	106.8	101.8	102.3	103.4	101.6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09년도대비
점포수	4,815	4,829	4,904	4,987	5,770	+1,379
전년대비	93.9	100.3	101.6	101.7	115.7	131.4

(출처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 를 토대로 야노경제연구소 작성)

< 일본의 슈퍼마켓 점포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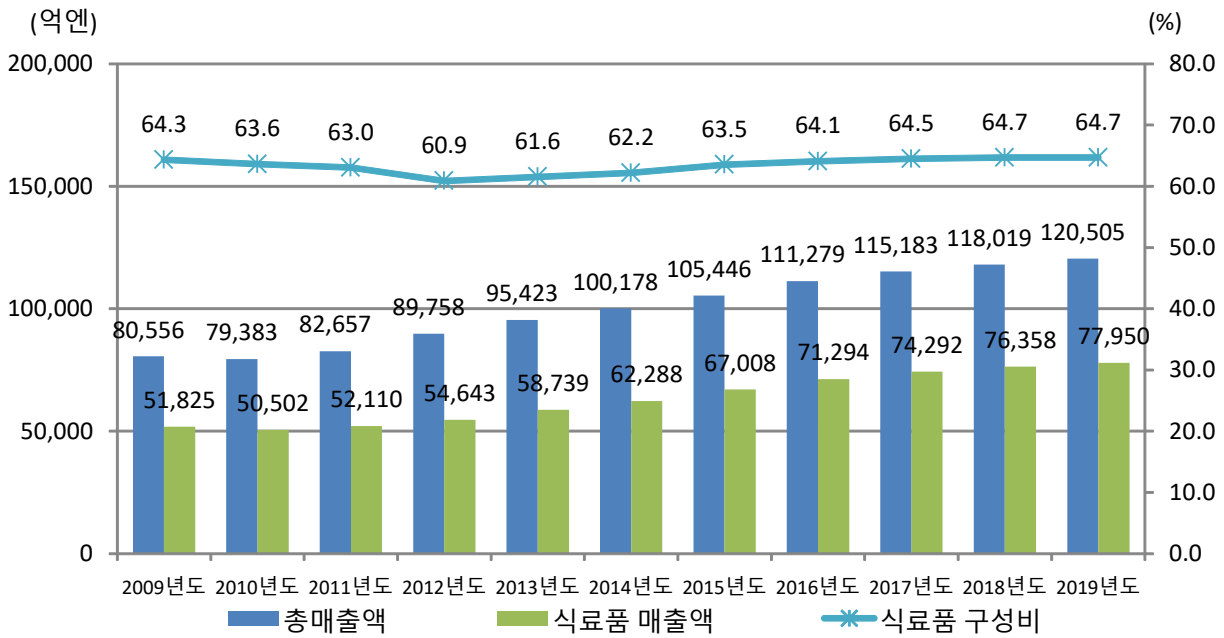


③ 편의점

■ 매출액

- 일본의 편의점은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등 대기업 3사의 매출이 편의점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함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에 의하면, 2019년도 편의점 매출액 기준의 시장 규모는 전년도대비 102.1%인 12조505억 엔임
- 식료품 매출액에 대해서도 2019년도가 전년도대비 102.1%인 7조7,950억 엔으로 2011년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음
- 2013년 이후 매년 105%대로 안정된 성장을 계속해 왔으나, 2016년도 이후 서서히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함. 2020년도는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긴급사태가 선언되고, 외출자제 및 재택근무 확대에 따라 내점객 수가 감소하여 도심의 오피스가를 중심으로 점포 매출이 감소하여, 시장규모도 감소로 전환되었음
- 식료품에 대한 수요증가 영향으로, 도시락 및 반찬, 카운터 패스트푸드 상품(계산대 주변의 튀김 등 스낵류)을 비롯해 디저트 등의 오리지널 상품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음
- 최근 일손부족 및 인건비 상승 문제로, 편의점의 심야영업 종업원 확보가 어려워진 점과 프랜차이즈점 오너의 노동시간 초과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 영향으로 편의점 본부의 24시간 영업 재검토 및 경제산업성이 시정에 나서는 등, 향후는 시간단축 영업에 따른 매출액 감소 영향이 과제가 됨

< 편의점 시장규모(매출액) 추이(2009~2019년도) >



(출처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 를 토대로 야노경제연구소 작성)

■ 점포수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 에 의하면, 2019년도 편의점의 점포수는 전년도보다 252점포가 감소한 56,334점포로,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되었음
- 지금까지 편의점 시장의 호조세를 견인한 것은 「점포수 증가」이며, 대기업 3사는 점포수의 증가에 따라 매출을 확대해왔음
- 그러나 대기업 3사 모두 2019년의 점포수는 약간 증가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향후는 채산성 없는 점포의 정리와 기존 점포의 매출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할 방침임

< 편의점 점포수 추이(2009~2019년도) >

(단위 : 점포,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점포수	41,895	42,412	45,753	48,406	50,820	53,220
전년대비		102.2	107.9	105.8	105.0	104.7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09년도대비
점포수	54,839	56,160	56,344	56,586	56,334	+14,439
전년대비	103.0	102.4	100.3	100.4	99.6	134.5

(출처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 를 토대로 야노경제연구소 작성)

④ 드러그스토어

■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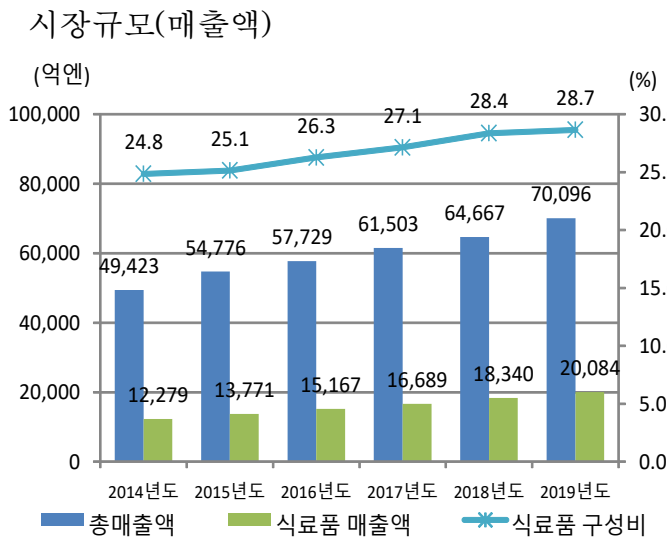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 에 의하면, 2019년도 드러그스토어의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는 전년도대비 108.4%인 7조96억 엔으로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식품분야의 성장세가 현저하고, 2019년도도 전년도대비 109.5%인 2조84억 엔으로, 최근 몇 년간 10% 전후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 식품 카테고리의 강화로 식품슈퍼마켓의 요소를 갖춘 드러그스토어의 전개 및 헬스&뷰티의 강화 등 드러그스토어 업태의 다양화를 진행하면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지방의 교외형 점포에서는 식품슈퍼마켓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상품 구성을 실현한 점포도 있음
-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인바운드 수요가 감소해 화장품 등의 매출도 감소한 반면, 마스크 및 소독제, 핸드워시 등의 위생관련 상품, 식품수요는 대폭적인 신장을 보였음

■ 점포수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에 의하면, 2019년도 드러그스토어 점포수는 전년도보다 591점포가 증가한 16,450점포임
- 드러그스토어 업계는 소상공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일용품의 제품을 충실히 함으로써 식품슈퍼마켓 및 편의점의 수요를 확보하면서 점포수를 확대하고 있음
-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에는 교외 출점이 주류였던 기업도 변화가를 중심으로 한 도심형 점포의 출점을 시작함

< 드러그스토어 시장규모(매출액)·점포수 추이(2014~2019년도) >



점포수

	점포수	전년대비
2014년도	13,157	—
2015년도	13,653	103.8
2016년도	14,509	106.3
2017년도	15,076	103.9
2018년도	15,859	103.9
2018년도	16,450	103.9
14년도대비	+3,293	125.0

※ 상업통태조사의 드러그스토어 통계는 2014년부터 시작

(출처 :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를 토대로 야노경제연구소 작성)

(2) 온라인 유통 채널

① 쇼핑 사이트

- 쇼핑 사이트를 통한 2019년도 식품 통신판매 시장규모는 전년도대비 105.3%인 1조5,020억 엔으로 추계함
- 쇼핑 사이트는 「라쿠텐이치바(樂天市場)」 및 「Yahoo!쇼핑」과 같은 쇼핑몰 형태와 「Amazon」, 「LOHACO」, 「yodobashi.com」과 같은 직판형으로 나뉘어짐
- 식품의 경우 쇼핑몰형과 직판형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으며, 대기업의 NB상품 및 생활밀착품(음료 등) 등은 가격이 싸고, 자택으로 배송되는 시간도 짧으며, 배송료가 저렴한 등의 이점이 있는 직판형이 강세임
- 한편 지방의 유명한 음식, 냉동어패류 및 냉동정육, 과일, 냉동스위츠 등, 직접 주문 성향이 강한 카테고리에서는 쇼핑몰형이 강세임
- 직판형은 생활필수품 및 중량이 있는 상품, 정기적인 구입이 예상되는 소비제품을 중심으로 착실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
- 쇼핑몰형은 외출자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택에서 「먹는 행복」을 즐기려는 수요가 확대됨

② 넷슈퍼

- 넷슈퍼의 2019년도 시장규모는 전년도대비 103.1%인 1,450억 엔으로 추계함
- 「택배문제」가 사회 전체에서 화제가 되고 있듯이 물류현장의 인력부족과 물류비 상승의 영향으로 인터넷 슈퍼마켓에 대한 잠재수요는 높지만, 서비스 제공 측의 공급체제에 한계가 있어, 2017년도 이후 출하물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COVID-19로 인해 넷슈퍼로 수요가 몰렸지만, 점포배송형은 출하량의 제약으로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음
- 2019년도는 수도권을 대상 지역으로 출하능력이 높은 중앙창고를 신설한 「라쿠텐 세이유(樂天西友)넷슈퍼」가 수요를 확대한 것과 아마존재팬과 제휴하여 프라임 회원을 위한 신선식품 등을 최단 2시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인 「Prime Now」에 라이프 코퍼레이션(LIFE CORPORATION)사의 인터넷 온라인판매가 출점한 것이 플러스로 작용해, 시장이 확대됨

③ 기업 직판

- 식품기업에 의한 직판의 2019년도 시장규모는 전년도대비 102.0%인 6,145억 엔으로 추계함
- 결산기 말에 발생한 COVID-19로 인해, 특히 가공식품, 쌀, 음료, 주류 등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특수가 발생한 것이 상승 요인
- 다만, 슈퍼마켓 등의 점포 채널에서도 대부분의 식품이 품귀현상을 일으켜, 대형 유통업자와의 거래가 있는 기업에서는 기존 채널로의 상품공급을 우선했던 경우가 적지 않아서 모든 수요에 대응할 수 없었음
- COVID-19로 인한 특수 영향을 제외하면, 여러 기업의 상품을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쇼핑 사이트나 인터넷 슈퍼마켓, 생협 등의 채널에 비하면, 기업의 직접 통신판매는 그 기업의 상품만 구매하는 형태이므로, 시장확대가 계속되는 식품 통신판매 시장 전체의 움직임과 비교하면 신장률은 낮은 상황임

- 6차 산업화의 확대를 배경으로 산지직송, 기업직송 등의 생산자·제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슈퍼마켓 및 편의점 등의 오프라인 점포나 쇼핑 사이트 채널과도 다른 형태로, ‘기업직송’이나 ‘공장직송’을 전면에 내세운 전개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4. 농식품 수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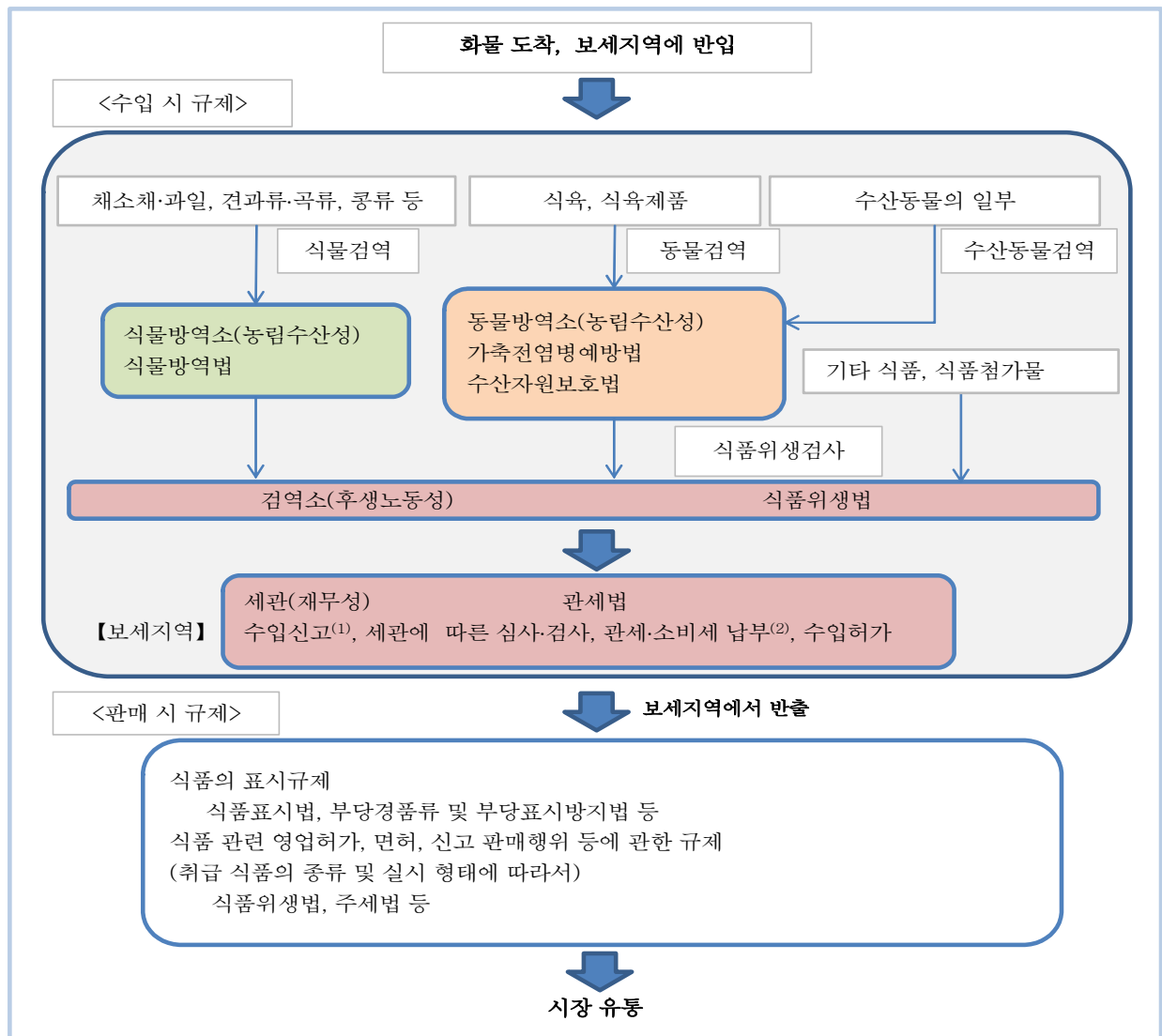
가. 수출절차

(1) 기본적인 수입절차

① 수입절차

- 일본으로 수입되는 물자는 보세지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실시, 필요한 심사 및 검사를 받고, 수입이 허가된 후에 물자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음
- 수입절차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채소·과실 등 식물계의 식품은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소, 육류, 육류제품 등 축산물계 식품은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수입자가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식품의 수입에서 판매까지 흐름>



주1: 관세관련 법령이 아닌 법령에 따라 수입 시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법령」을 토대로 허가·승인 등을 받고, 수입신고 또는 세관에 의한 심사·검사 시 그 취지를 증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주2: 주류의 경우는 보세지역 내에서 상품에 주류업조합법 등에 따른 일본어 표시를 부착하고, 관세·소비세·주세를 납부한 후에 보세지역에서 반출함

(출처: 일반재 단법인 대일무역투자교류촉진협회 「식품수입 안내서 2019」)

(2) 대표 품목별 수출절차

① 신선품(채소)

- 해외로부터 병충해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되는 채소에는 식물검역을 실시함. 그때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함
- 채소의 상태·종류,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는 수입할 수 없거나 식물검역이 면제되는 것도 있음
- 식물방역법 절차 외에, 식품위생법, 식품표시법 절차도 필요함
- 수입절차는 상기 그림 참조

식물방역법

■ 수입규제

- 식물방역법 제6조에서 「수입하는 식물 및 그 용기포장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해 발행되고, 그 검사 결과 검역유해동물이 붙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신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검사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한 것이 아니면 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7조에 아래의 동물은 수입금지품으로 되어 있음
 - a. 검역유해동물(곤충, 진드기, 선충, 기타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등, 유용한 식물을 해치는 것으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제1의 1 및 2에 규정된 것)
 - b. 검역유해식물(진균, 점균, 세균, 기생식물, 바이러스 등, 유용한 식물을 해치는 것으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의 1 및 2에 규정된 것)
 - c. 흙 또는 흙이 묻은 식물
 - d.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2의 2에 열거한 식물
 - e.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열거한 식물(동표에서 재배된 것을 제외)

【별표】

https://www.maff.go.jp/pps/j/law/houki/shorei/shorei_12_html_12_until_210427.html

- 발생하는 검역유해동식물은 국가·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같은 식물이라도 수입국가마다 수입조건이 다름. 수입을 금지하지 않은 국가·지역에서도 재배지 검사 등의 수출국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식품위생법

■ 규격기준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후생성 고시 제370호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에서 식품첨가물 및 그 사용기준과 농약잔류기준(각 식품 속 농약의 잔류량 한도)이 정해져 있음(잔류농약 등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86592.html>

- 수입농산물에는 일본의 농약단속법, 식품위생법으로 규제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약에 대해서도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거나 잔류농약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농약 등의 허용량은 0.01ppm 이하임. 또한 식품첨가물 및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물질의 함유에도 주의가 필요함
- 수입 채소의 경우, 일본에서는 사용이 규제된 발색제, 착색료, 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

② 축산품(육류 및 육류제품)

- 육류 또는 육류제품의 수입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축산물의 수입검사,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 등 수입검사를 받아야 함
- 수입절차는 상기 그림 참조

수입 시 규제

■ 관세잠정조치법/관세정률법(제12조의 2) /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관세분류번호 HS0203, HS0206, HS0210, HS1602 중, 돈육은 차액관세제도가 적용됨
- 이것은 국내 양돈농가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품 가격이 낮을 때는 분기점 가격을 밑도는 부분을 관세로 징수하고, 가격이 높을 때는 저율의 증가세를 적용함으로써 관세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구조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 육류는 동법에 근거한 「지정검역물」로, 수입 시에는 지정기일까지 수입항이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수입검사신청서(축산물)」에 수출국 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와 필요서류를 함께 신고해야 함(법 제40조)
- 검사 결과, 합격하면 「수입검역증명서」가 교부됨(법 제44조, 제45조)
- 우돈양가 등의 육류에 대해서는 악성가축전염병(우역, 구제역, 돼지콜레라,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고원병성 조류독감)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금지지역이 정해져 있음. 또한 BSE(광우병) 발생국가의 소·양·염소 유래, CWD(만성소모성질환) 발생국가의 사슴 유래 육류제품 등의 수입은 일시 중지되었음

■ 식품위생법

-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항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에게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필요서류(상품설명서, 원재료, 성분표, 제조공정, 보존방법 등을 표시한 자료, 이미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는 지정검사기관분석의 성적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심사·검사 후, 동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필증이 반납되므로, 수입 신청 시 세관에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함. 기타 아래 사항에 주의해야 함
 - a. 육류 수입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b. 육류제품은 동법에 근거하여 성분·제조·보존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음
 - c.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된 발색제, 착색료, 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 과거 위반사례로는 이버맥틴(브라질산 소고기), 클렌부테롤

(중국산 돼지고기), 푸랄타돈(중국산 닭고기) 등의 검출사례가 있음

- d. 잔류농약기준(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으며, 일정 이상의 농약, 사료첨가물, 동물용 의약품 등이 잔류한 식품의 판매 등은 금지됨

③ 가공식품(알코올음료)

- 알코올음료를 수입 판매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 판매목적으로 알코올음료를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음
- 수입절차는 상기 그림 참조

수입 시 규제

■ 주세법

a. 절차

- 판매목적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본인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 후생노동성검역소 식품 등 수입신고 접수창구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와 필요서류 [원재료, 성분 또는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위생증명서(필요에 따라), 시험성적표(필요에 따라)]를 신고해야 함
- 검사 결과, 규격기준 및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검사를 실시함
- 검역소에서 심사 및 검사 결과, 동법상 문제가 없으면 「식품 등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며, 그것을 세관에 수입신고 시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함
- 부적격으로 판명된 것은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자는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함

b. 규격기준

- 와인 등의 알코올음료를 수입하는 경우, 첨가물 및 잔류농약기준(농약의 각 식품 속의 잔류량 한도)에 유의해야 함
- 기준(허용량)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후생성고시 제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에서 규정함(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 또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는 농약 등의 허용 기준량은 0.01ppm 이하임
-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 및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의 함유에도 유의해야 함
-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된 발색제, 착색료, 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경우가 있음. 일례로 아래와 같은 위반사례가 있음
 - i. 브랜드: 메탄올 과량 검출
 - ii. 리큐어: 메탄올 과량 검출, 소르브산(보존료)의 대상 외 사용, L-사과산(지정 외 산미료), 지정 외 착색료인 카로모이신, 퀴놀린 엘로, 페턴트 블루-V 함유 등
 - iii. 와인: 소르브산 과량 사용, 이산화유황(산화방지제) 과량 잔존
 - iv. 와인클러: 안식향산(보존료) 대상 외 사용
 - v. 상그리아: 지정 외 감미료인 아세설팜칼륨, 시클라민산나트륨 함유, 사카린나트륨의 대상 외 사용 등

나. 수입제도

(1) 통관제도

① 관리·법률 시스템

- 관세관련 법령에는 주로 수출입절차에 관련된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이 있음

관련법	개요
관세법	-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급, 물품의 수출 및 수입에 대한 관세 절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관세정률법	- 관세의 과세물건, 세율, 과세표준, 감면, 기타 관세제도에 대해 규정한 법률 - 관세는 수입화물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며, 세율은 동법 별표에 정해져 있음 - 그 밖에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등의 특별관세, 수입금지품, 수입영화등심의회, 관세율심의회 등에 대해 규정
관세잠정조치법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의 관세율 조정에 대해, 관세정률법 및 관세법의 잠정적 특례를 규정한 법률

- 또한 필요한 통관절차는 수입방법에 따라 다르며,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등의 관세법 제70조에서 말하는 「타법령」의 허가·승인 등이 필요함

② 통관절차

- 물품의 수입자는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하역한 후에 보세지역에 반입한 다음,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납세)신고를 실시함
-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은 서류심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여 관세 등의 납부를 확인해 수입을 허가함.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관이라고 함. 통관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물품이 국내에서의 유통을 인정받게 됨

〈일반화물로서 선박·항공기를 이용해 수입하는 경우〉

제출시기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을 보세지역에 반입한 후
제출처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관청의 통관담당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에 근거해 세액 확정(신고납세방식) · 과세가격의 총액이 20만 엔 이하일 경우, 소액수입화물에 대한 간이세율을 적용(잡콩, 코코아 조제품 등 일부 품목은 적용 제외).
수수료	무료 ※통관업자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한 경우는 그에 대한 수수료 지불
통관의 주요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면, 선박회사(항공회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도착 통지(Arrival Notice)가 옴 ② 통지를 한 선박회사·항공회사에 가, 운송관련서류(화물인도지시서 등)를 받음 ③ 상업송장, 운임명세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 함 ④ 수입이 허가되면 수입허가서와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에 제시하고 화물을 인수함

■ 사전신고제도

- 식품 등의 수입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전신고제도」가 있음
- 모든 식품 등에 대해 화물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검사가 필요한 물품 등을 제외하고 화물도착 전이나 반입 후에 신속히 신고필증이 교부됨

③ 통관제출서류

- 수입신고는 필요사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진행되는데, 수입신고서 외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필요서류	내 용
상업송장 (Invoice)	품명, 수량, 가격, 계약조건, 계약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선적된 화물의 명세를 나타냄과 동시에 대금결제, 수출입신고 등도 Commercial Invoice를 기준으로 처리됨. 무역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또는 해상운송장 (Sea Way Bill: SWB), 항공화물은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AWB))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물품운송계약을 근거로 화물을 인수, 선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화주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발행함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포장별로 품명, 개수, 중량, Shipping Mark 등을 기재함.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Invoice로 병용하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보험료명세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임명세서	

- 기타 화물 종류에 따라 아래의 서류가 필요함

필요서류	내 용
타 법령 허가·승인 증명서	식물방역법 등의 관세관련 법령 이외의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승인이 필요한 화물의 경우
특혜원산지증명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 경우
감면세증명서	감면세 적용을 받는 경우

④ 관세제도

-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됨
 관세...과세가격(CIF가격+가산요소(※))×관세율
 소비세...(과세가격+관세)×소비세율
 ※가산요소 : 수입항에서의 운송관련 비용, 라이선스료, 무상제공하는 부재비 등
- 관세율은 관세정률법에 의거 분류된 품목별로 정해져 있음
- 품목분류와 원산국에 따라 기본세율, 잠정세율(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기본세율을 수정한 세율), 특혜세율(개발도상국에서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율), 협정세율(WTO에서 정한 세율), EPA세율(경제제휴협정을 체결한 당사국간 정해진 세율) 등의 세율이 적용됨

■ 관세할당제도

- 관세할당제도는 일정의 수입수량의 범위에 한해 저세율(1차세율)의 관세를 적용해 수요자에게 저가의 수입품 공급을 확보하는 한편, 이 일정의 수입수량 범위를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세율(2차세율)의 관세를 적용

< 관세할당 대상품목(식품만 발취) >

옥수수, 자연치즈, 맥아, 당밀, 무설탕코코아제조품, 토마토피레/페이스트, 파인애플 통조림, 기타 유제품, 탈지분유, 무가당 우유, 유청 등, 버터 및 버터 오일, 잭콩, 전분·이눌린 및 전분조제품, 땅콩, 곤약감자, 조제식용기름, 고치 및 생사

- 이 일반적인 범위와는 별도로 경제제휴협정(EPA)에 의해 관세할당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2021년 8월 현재 대상은 아래와 같음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페루, 호주, 몽골, TPP11, 일본 EU·EPA, 미일무역협정

(2) 검역제도

① 관리·법률 시스템

- 판매 등의 목적으로 식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우,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위생상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으며, 수입자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수입되는 식물(과일 및 채소 등의 식품도 해당)에 대해서는 유용한 식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충해가 일본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검역이 의무화되어 있음
- 가축의 전염병이 일본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검역 대상을 지정해(지정검역물), 축산물의 수입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음
- 일본의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산동물의 전염병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수산동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장관의 수입허가가 필요함

② 검역절차

- 채소·과실 등 식물계 식품은 농림수산성의 식물검역소에서, 육류, 육류제품, 유제품 등 축산물계 식품 및 수산동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수입자가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를 받음
- 식물검역소와 동물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과 그 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후생노동성의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
- 후생노동성 검역소는 수입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유독·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지, 식품위생법의 규격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함
- 검역소는 검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내용을 지시하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여부를 판단함
- 수입하는 화물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한다고 판단된 경우는 신고필증을 수입자에게 돌려주어,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진행함

③ 검역제출서류

■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 식품 등 수입신청서 : 2부
- 첨부서류는 식품의 품명, 생산국, 가공방법 등에 따라 다름
-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명」과 「제조공정표」가 필요함.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제조자 또는 수출자 등이 작성·발행한 것(회사명과 책임자의 서명 필수)이어야 함
-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첨부서류 예>

첨부서류 예	
가공식품	<p>【모든 가공식품에 대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일반명칭, 상품명, 품번 등), 제조자 명칭과 소재지, 제조장소 명칭과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원재료표, 제조공정표 <p>【품목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재된 제조자의 서류 - 원재료에 쇠고기, 소유래 성분을 포함한 경우, 소 육성과 도축 및 원산지, 원료 소의 사용 부위를 서면으로 확인한 것 - 원료에 따라서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률에 정한 의약품 성분의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기록한 것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기준이 정해져 있는 식품은 제조자에 의한 제조가공 과정의 위생관리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신선식품 (육류, 채소, 어패류 및 기타 간이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 포장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학명 및 품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원재료 표와 첨가물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품명, 생산국에 따라 수출 측 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
첨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가물 제제의 경우, 배합비율, 사용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설명서

(출처 : 일반재단법인 대일무역투자교류촉진협회 「식품수입 안내서 2019」)

■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검사에 필요한 서류

- 수입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을 수입하는 항구(공항)를 관할하는 식물방역소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식물방역검역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항공화물 운송장(Air Way Bill)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식물, 수입금지 등 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함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입검사에 필요한 서류

- 수입에 앞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 취득이 필요함
- 원칙적으로 현물 검사를 희망하는 일자의 전날까지 수입검사신청서,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IAW(수입화물정보조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하는 항구(공항)을 관할하는 동물방역소에 제출함
- 상품증명서(원재료 등), 가공공정서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④ 검역타결품목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은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모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또는 유아용 장난감의 수입에 대해서 그때그때 후생노동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용 또는 시험연구용 등 국내에서 식품 등으로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 첨가물의 원재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에서는 식물을 수입금지품, 검사불요품, 수입검사품 3종류로 구분함. 검사불요품 및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입금지품목은 아래와 같음

< 검사불요품(식품관련) >

- 제조차, 말린 홉꽃 및 말린 죽순
- 발효처리된 바닐라빈
- 아황산, 알코올, 아세트산, 설탕, 소금 등에 절인 식물
- 살구, 무화과, 감, 키위, 자두, 배, 대추, 대추야자, 파인애플, 바나나, 파파야, 포도, 망고, 복숭아 및 용안 건과
- 코코야자의 내과피를 과립으로 한 것
- 건조한 향신료로 소매용 용기에 밀봉한 것

(출처 : 식물방역소)

< 일본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품목 >

유럽빗살나무, 황금불가레취뚱나무, 구기자나무, 채진목속, 아로니아속, 모과나무속, 모과나무속, 모과나무, 섬개야광나무속, 크라타에고메스필루스속, 산사나무속, 마르멜루, 디코토만테스속, 도키니아속, 비파나무, 헤테로멜레스속, 사과나무속, 양모과나무, 페라필라움속, 홍가시나무속, 오스테오멜레스속, 벗나무속, 피라칸사속, 배나무속, 다정큼나무속, 로사 카니나, 마가목속, 조팝나무, 스트란베시아속

(출처 : 식물방역소)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수입검사가 필요한 축산물, 수입검사가 필요없는 축산물 및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입금지된 품목은 아래와 같음

< 수입검사가 필요한 축산물 >

소·돼지·양·산양·사슴 등의 우제류 동물	의	- 고기, 장기, 뼈, 뿔, 가죽, 털, 알, 생유, 배설물 등 - 고기 등을 원료로 한 햄·소시지·베이컨 - 고기 등을 포함한 가공품
말·당나귀 등의 말과 동물		
가금(닭, 메추라기, 꿩, 타조, 빨닭, 칠면조, 오리·거위 등의 오리목의 조류)		
토끼, 꿀벌		
개		

(출처 : 일반재단법인 대일무역투자교류촉진협회 「식품수입 안내서 2019」)

< 수입검사가 필요한 축산 제품 >

- 지정검역 동물 이외의 동물유래 제품 - 지정검역 동물유래 제품 중 ① 뿔, 털, 가죽, 날개 등의 완전가공품 ② 꿀, 다만 벌집꿀(벌집 상태 그대로의 꿀) 및 애벌레나 꿀벌이 들어 있는 경우는 검역 대상임

(출처 : 일반재단법인 대일무역투자교류촉진협회 「식품수입 안내서 2019」)

< 한국으로부터 수입금지 중인 축산물·제품 >

돼지와 멧돼지를 제외한 우제류 동물 (소, 양, 염소 등) 및 그 제품	의	동물, 수정란·정액, 소시지·햄·베이컨, 고기·내장
돼지, 멧돼지 및 그 제품		
가금(닭, 칠면조, 오리 등) 및 그 제품		
곡물의 짚 및 사료용 건초	의	곡물의 짚 및 사료용 건초

(출처 : 동물검역소)

-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가축에 대해 이전부터 돼지콜레라에 관한 가열처리 돈육 등의 가축위생조건을 규정했었는데, 한국에서 새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조건에 부합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새로 설정한 가축위생조건(가열처리온도 변경 등)에 따른 관리조치를 실시하면, 위의 병이 일본에 침투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한국 가축위생당국은 일본에 일본수출용 가열처리 돈육 등 수입에 관한 요청을 하였고,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가열처리 돈육 등의 수입에 관련된 가축위생조건안에 대해 양국 간에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음 (2010년)
- 합의한 가축위생조건은 돈육과 가금육에 한정되며 아래 표와 같음

< 용어의 정의 >

종류	용어	정의
돼지	돼지	돼지 및 멧돼지
	돈육 등	돼지유래 고기, 지방, 장기 및 이것들을 원료로 하는 소시지, 햄, 베이컨, 그리고 이것들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
가금	가금	닭, 메추라기, 타조, 꿩, 뿔닭, 칠면조, 오리·거위, 기타 오리목의 조류
	가금육 등	가금에서 유래하는 고기, 지방, 다리, 장기 및 이것들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육분 및 육골분은 제외)

(출처 : 농림수산성)

< 일본국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가열처리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처리 >

종류	정의
돼지	<p>모든 뼈를 제거하여 다음 중 어느 한 방법에 따라 처리</p> <p>가) 찜, 찌거나 섭씨 100℃ 이상의 증기로 처리해 해당 고기의 중심 온도를 1분간 이상 섭씨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p> <p>나) 증탕, 열풍 건조, 그 외의 방법으로 해당 고기의 중심 온도를 30분간 이상 섭씨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p>
	<p>모든 뼈를 제거한 것을 얼리지 않고 3일 이상 보관한 후, 이것을 소금절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해 다음 중 어느 한 방법에 따라 처리</p> <p>가) 찜, 찌거나 섭씨 100℃ 이상의 증기로 처리해 해당 고기의 중심 온도를 1분간 이상 섭씨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p> <p>나) 증탕, 열풍 건조, 그 외의 방법으로 해당 고기의 중심 온도를 30분간 이상 섭씨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p>
가금	<p>일본국에 수출하기 위해 가열하는 방법을 적용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에서, 해당 가금육 등의 중심 온도를 1분 이상 섭씨 70도 이상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열하는 처리</p>

(출처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업장관이 지정하는 가열처리시설 목록>

종류	번호	명칭	주소
돼지	404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MOGUCHON UMSUNG CHICKEN PROCESSING PLANT	81, DAEGEUM-RO 1278BEON-GIL, GEUMWANG-EUP,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KOREA
	J01511001	DINEJEJU CO., LTD	26-3, HAGWI-RO 25-GIL, AEWOL-UP, JEJU-SI, JEJUDO, KOREA
	K01513002	FOODWARE CO., LTD.	28-38, SUNDONGSANDAN 1-GIL, GIMJE-SI, JEOLLABUK-DO, KOREA
	M01510004	JANGCHUNG DONG WANG JOKBAL. CO.,LTD.	232-28, SEONDONG 2-GIL, HYEONDO-MYEON,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M01511004	EU FOODS, INC.	155, CHUKHANG-DAERO 290BEON-GIL, JUNG-GU, INCHEON, KOREA
	M01514002	S-FOOD CO.,LTD EUMSEONG PLANT	60, WONNAMSANDAN-RO, WONNAM-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KOREA
	SR1513001	GUSBE CO.,LTD.	898, YANGJIN-RO, JINJEOP-EUP, NAMYANGJU-SI, GYEONGGI-DO, KOREA
가금	404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FEDERATION MOGUCHON UMSUNG CHICKEN PROCESSING PLANT	81, DAEGEUM-RO 1278BEON-GIL, GEUMWANG-EUP,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KOREA
	K01516002	KUEMHWA INC	128, CHEONGGYEGONGDAN 1-GIL, MUAN GUN, JEOLLNAMDO, KOREA
	M01514002	S-FOOD CO.,LTD EUMSEONG PLANT	60, WONNAMSANDAN-RO, WONNAM-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KOREA

(출처 : 농림수산업성)

(3) 대표품목별 라벨

① 라벨 규정

- 식품의 표시는 식품표시기준을 정한 「식품표시법」을 중심으로, 적정한 계량을 정한 「계량법」, 허위·과대표시를 방지하는 「경품표시법」, 미곡 등 산지정보를 전달하는 「쌀 트레이서빌리티법」, 각 지자체 조례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일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는 아래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일본어로 표기해야 함

■ 식품표시법

-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식품의 표시는 식품표시법의 규제를 받음
- 식품표시법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의약품·의약외품 등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첨가물 포함)임. 주세법이 정한 「주류」도 대상임
- 2015년 4월의 식품표시법 시행으로, 그 전까지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의 세 법률에 기재되어 있던 식품표시에 관한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었음
- 구체적인 표시규칙은 「식품표시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맞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식품은 판매할 수 없음
- 식품표시기준은 식품을 「가공식품」, 「신선식품」, 「첨가물」의 셋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 구분 각각에 대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업무용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식품 관련 사업자 이외의 판매자」의 「공통되는 의무 표시」, 「개별적 의무 표시」, 「의무표시특례」, 「임의표시」, 「표시방식」, 「표시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통 표시사항

- 식품 관련 사업자가 신선식품을 판매할 때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명칭」 및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세부사항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현미 및 정미에 따라 각기 규정됨)

□ 일정 식품의 공통 표시사항

- 「공통 표시사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일정 식품을 판매할 때는 정해진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함

<일정 식품의 공통 표시사항>

방사선 조사(照射)에 관한 사항	방사선을 조사했다는 사실 및 방사선을 조사한 연월일임을 명기한 글자를 기재한 해당 연월일을 표시함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관한 사항	유전자 변형 농작물은 품종마다 ①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 ②일본의 야생식물에 대한 영향은 「카르타헤나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수입, 유통, 생산하게 되어 있음.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규칙이 규정되어 있음
유아용 규격 적용 식품	「유아용 규격 적용 식품」이라는 글자 또는 그 취지를 적확히 알리는 문구를 표시함. 단, 유아용 규격 적용 식품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식품은 유아용 규격 적용 식품임을 명기하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내용량	육류, 채소, 어패류, 등유 등 29종류를 특정 상품으로 정함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② 계량법의 상품중량제도」를 참조
식품 관련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식품 관련 사업자 중 표시내용에 책임을 지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함

□ 일반용 가공식품의 표시 예

명칭	우롱차
원재료명	반(半)발효차
내용량	300g
유통기한	2017.3
보존방법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존해 주십시오.
원산국명	중국
수입자	○○ 주식회사 도쿄도 도시마구 ○○초 3-1-3

(주) 글씨 크기는 원칙적으로 8포인트 이상

□ 영양성분표시 예

영양성분표시 1포장(2개) 당	
열량	483kcal
단백질	17.2g
지질	22.7g
탄수화물	52.0g
식염 상당량	3.6g

□ 영양성분표시

- 식품표시기준에서는 영양성분 및 열량을 의무표시대상 성분, 권장표시대상 성분, 임의표시대상 성분으로 정함. 이 영양성분 및 열량은 국민의 영양섭취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결핍 또는 과잉섭취가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함

- 영양성분 및 열량 보급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취지, 나트륨(식염) 및 당류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취지 등의 영양강조표시를 할 경우 등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의무가 있음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특정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및 특정 원재료에서 유래하는 첨가물을 함유한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할 의무가 있음. 또한, 식품표시기준에서 정한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표시 방법은 특정 원재료 및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이하 「특정 원재료 등」이라 한다) 을 원재료로 포함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재료명 바로 뒤에, 괄호 안에 특정 원재료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표시함(개별 표시의 원칙)
- 포함하는 재료를 알리는 이러한 표시는 「(○○을 포함)」(「○○」에는 특정 원재료 등 이름을 표시. 이하 동일.) 이라고 표시하고, 특정 원재료 중 「우유」는 「(우유 성분을 포함)」이라고 표시함
- 특정 원재료 등에서 유래하는 첨가물을 함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첨가물의 물질명 바로 뒤에, 괄호 안에 특정 원재료 등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표시함. 유래하는 재료를 알리는 이러한 표시는 「(○○ 유래)」라고 표시하며, 특정 원재료 중 「우유」는 「(우유 유래)」라고 표시함

< 특정 원재료 및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

【의무】 특정 원재료 7품목	새우, 게, 밀가루, 메밀, 계란, 우유, 땅콩
【권장】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20품목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 우육, 호두, 깨, 연어, 고등어, 대두, 계육, 바나나, 돈육,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

② 계량법의 상품중량제도

- 계량법에서는 사업자가 법정계량단위를 나타내고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계량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판매하는 상품이 계량법의 「특정상품(일상적으로 질량 및 부피 등으로 거래되고 있는 소비생활 관련 물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중량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는 밀봉하여 계량 판매할 때, 계량법에서 정한 오차(양목공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량해야 함
- 특정 상품 중 일부 상품은 밀봉 포장해 계량 판매할 때, 계량법에서 정한 오차(양목공차) 내로 계량하고, 그 내용량, 표시하는 자의 성명·주소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

③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부당표시

- 경품표시법은 상품·서비스의 거래에 대해 일반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함에 따라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소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광고·홍보 등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부당한 표시 등은 금지되어 있음
- 여기에서 말하는 표시란 상품 본체에 하는 표시(용기·포장 등을 포함)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하는 표시, 전단지, 신문·잡지, TV, 인터넷을 통한 광고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지정함
- 상품·서비스의 품질, 규격,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뛰어나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표시(우량 오인 표시), 가격이나 거래 조건에 관하여 현저히 유리하다고 오인할 표시(유리 오인 표시), 원산국에 대해 오인할 표시, 유인 광고 등은 부당 표시에 해당함.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의심될 경우, 소비자청·각 광역지자체(도도부현)는 관련 자료의 수집, 사업자에 대한 보고징수 등의 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표시 개선 등의 「지도」나 「조치명령」을 받게 됨

■ 원산국 표시

- 경품표시법은 「상품 원산국에 관한 부당한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 여기에서 말하는 원산국이란 「그 상품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를 가리킴
- 외국산 상품에 대해 아래 항목의 표시가 있고, 그 상품이 해당 원산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당 표시임.
 - ① 원산국 이외의 국가명, 지명, 국기 등을 표시
 - ② 원산국 이외 국가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의 성명·명칭, 상표를 표시
 - ③ 글자로 표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 표시

④ 유기JAS규격

- 유기식품의 제삼자에 의한 인증구조는 JAS법에 의해 제정되어 있음
- 유기JAS규격으로서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유기축산물 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세 분류), 유기축산물을 규정하고, 그 생산 또는 제조 방법을 인정받은 것은 유기JAS마크를 표시해 유통시킬 수 있음
- 특히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은 소비자의 선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칭 표시 적정화를 도모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지정(지정 농림물자)되어 있음
- 유기JAS규격을 충족했다고 인정사업자가 유기JAS마크 표시를 한 것이 아니면 「유기」, 「오가닉」 또는 이와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면 안 됨
- 한편, 지정 농림물자에 해당이 안 되는 유기축산물 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 가공식품, 유기축산물의 경우에는 유기JAS마크가 없어도 유기나 오가닉 등과 같은 표시를 할 수 있음. 단, 지정 농림물자와 혼동할 수 있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 표시는 할 수 없음

유기JAS규격		JAS법의 표시규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유기JAS마크를 표시하는 방법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지정농림물자	유기표시 시에는 유기JAS마크 필요	①외국의 사업자가 JAS인정을 취득하여, 유기JAS 마크를 표시한 제품을 일본의 사업자가 수입함. 수입국에 제한은 없고, 국내의 수입업자가 JAS 인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음 ②일본의 인정수입업자가 외국의 유기식품 인정을 받은 제품을 수입하여, 유기JAS 마크를 표시함. 수입국은 JAS제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국가에 한함
	유기농축산물 가공식품	지정농림물자에 해당하지 않음		
유기축산물		지정농림물자에 해당하지 않음		①외국의 사업자가 JAS인정을 취득하여, 유기JAS 마크를 표시한 상품을 일본의 사업자가 수입하는 방법뿐임 ※수입업자가 유기JAS 마크를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

■ 주요 품목별 표기사항 예



신선 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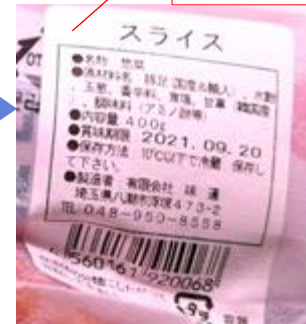


원산국
 상품명
 수입자

축산 가공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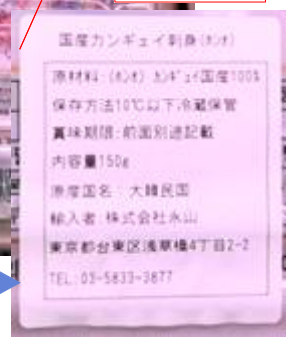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존방법
 제조자



수산물



원재료
 보존방법
 상미기한
 내용량
 원산국명
 수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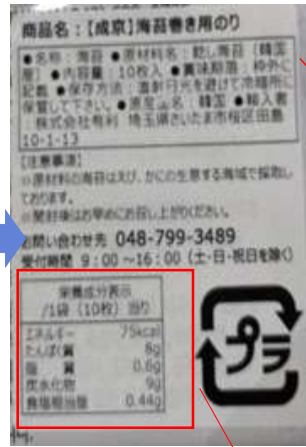




영양성분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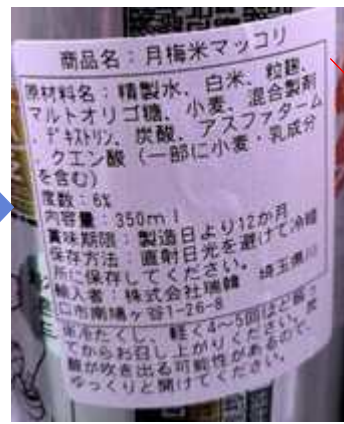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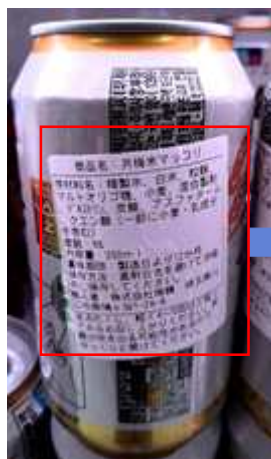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존방법
원산국명
수입자



영양성분표시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상미기한
보존방법
원산국명
수입자



상품명
원재료명
도수
상미기한
보존방법
수입자

다.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1) TBT 통관규정

■ 일본이 제출한 농식품관련 TBT통보(2020년 1월~)

배포일	2020/4/6
대상품목	사료와 사료첨가물
목적	소비자 정보, 라벨링, 인간 건강 또는 안전 보호, 동식물 생명 또는 건강 보호, 품질 요구사항
심볼/ 내용설명	G/SPS/N/JPN/682 및 G/SPS/N/JPN/682/Add.1로 통지된 G/TBT/N/JPN/663, MAFF(농림수산성)는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표준 및 규격에 관한 장관 조례에서 말 사료에 대한 구성, 제조 및 라벨 표시에 대한 표준과 규격을 정할 것이다. 또한, MAFF는 사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에 대해 “인간 소비를 위한 말“을 규정할 것이다. 부록은 이 개정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이 TBT 통지는 2020년 3월 31일에 통보된 G/SPS/N/JPN/732와 동일하다.

배포일	2020/6/3
대상품목	사료와 사료첨가물
목적	소비자 정보, 라벨링, 인간 건강 또는 안전 보호, 동식물 생명 또는 건강 보호, 품질 요구사항
심볼/ 내용설명	2020년 4월 6일자 G/TBT/N/JPN/663에 공지된 바와 같이,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표준 및 규격에 관한 조례 개정, 사료제품의 오염물질의 최대 수준, 사람 소비만을 위한 말에 대한 고시의 발행이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개정사항과 발행사항은 2020년 6월 1일 “캄포”(일본 관보)에 게재되며 부록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배포일	2020/7/31
대상품목	사육을 위한 소, 말, 돼지로부터 유래한 정액 및 배아(HS: 0511.10,0511.99)
목적	기만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심볼/ 내용설명	G/TBT/N/JPN/667 생산부터 인공수정, 배아이식까지 이력 추적을 확보하여 부정거래 및 무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MAFF(농림수산성)는 가축개량증식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인공수정이나 배아이식에 사용되는 “지정 정액 또는 배아“로 채워진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라벨 표시 요건을 확립할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에 다음 항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a) 정자 1) 정자 기증자 이름 2) 채취 날짜 - 정자 기증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1)의 대체로 개별 식별 번호(Bovine)를 표시할 수 있다. b) 배아 1) 정자 및 난모세포 기증자 이름 또는 개인 식별 번호(Bovine) 2) 채취일 3) 인공수정센터 등록번호. - 배아 인증번호는 1) 및 2)의 대체품으로 표시될 수 있다. 참고: 이 개정사항에 따라 일본 검정, 일본 갈색, 일본 쇼트혼, 일본 폴드, 4개 품종의 잡종에 대해 “지정 정액과 배아”를 지정하는 조례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0년 4월 공포한 가축유전자원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지정 정액 과 배아 “의 부적절한 거래가 금지될 예정이다.
--	--

배포일	2020/10/5
대상품목	현미와 백미 HS코드: 1006(쌀);
목적	소비자 정보, 라벨링
심볼/ 내용설명	G/TBT/N/JPN/675 현 제도에서는 현미 또는 백미의 경우 생산지·품종·생산연도가 동일한 미가공 현미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고, 국내생산품의 경우는 농산물검사법(1951년 법률 제144호)에 의해, 수입품의 경우는 수출국 등의 공공 기관에서 인증한 경우에만 산지·품종·생산연도를 표시할 수 있다. 식품표시기준은 위에 언급된 인증 없이 현미 또는 백미의 생산지·품종·생산연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일부가 개정될 예정이며, 식품 관련 종사자는 이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배포일	2021/2/11
대상품목	사육용 황소(육우) 및 멧돼지 HS 코드: 0102(살아 있는 소의 동물), 0103(살아 있는 돼지);
목적	기타
심볼/ 내용설명	G/TBT/N/JPN/689 일본에서 사용하는 황소(육우) 및 멧돼지 등급기준 개정안을 통보하기 위함이다. 등급 기준은 품종, 능력, 체형별로 정해져 있으며, 수입 황소 및 멧돼지에 적용되지 않는 능력만 개정안에서 수정될 예정이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육에 사용되는 가축의 수컷은 가축개량증식법에 따라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사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육증명서에는 품종, 능력, 체형에 따른 등급이 기술되며,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황소(육우)와 멧돼지의 등급기준이 2020년 3월 발간된 가축개량 및 성장목표에 맞게 개정될 것이다.

배포일	2021/3/29
대상품목	사육용 황소(육우) 및 멧돼지
목적	기타
심볼/ 내용설명	G/TBT/N/JPN/689/Add.1 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사육용 황소(육우)와 멧돼지 등급 기준을 개정했다.

(2) SPS 통보현황

■ 일본이 제출한 농식품관련 SPS 통보(2020년 1월 ~)

배포일	2020/4/2
대상품목	<p>설명 : 육류 및 식용 육류 내장(HS 코드: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및 02.09) 유제품 및 조류의 알(HS 코드: 04.01, 04.07 및 04.08) 동물성 제품(HS Code: 05.04) 식용 채소 및 특정 뿌리 및 괴경(HS 코드: 07.01, 07.02, 07.07, 07.08, 07.09, 07.10, 07.13 및 07.14)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의 껍질(HS 코드: 08.01, 08.02,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및 08.14) 차, 마테 및 향신료(HS 코드: 09.02, 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09.09 및 09.10)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HS 코드: 12.01, 12.07 및 12.10) 동물성 지방과 기름(HS 코드: 15.01, 15.02 및 15.06)</p>
목적	식품 안전,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
심볼/ 내용설명	<p>G/SPS/N/JPN/652/Add.1 G/SPS/N/JPN/652(2019년 6월 17일자)에 고시된 비페나제이트(Bifenazate)에 대해 제안된 잔류허용기준(MRL)는 2019년 10월 2일에 채택되어 발표되었다. 지정된 MRL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p>

배포일	2020/4/2
대상품목	<p>식용 채소 및 특정 뿌리 및 괴경(HS 코드: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및 07.13)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껍질(HS 코드: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및 08 마테 및 향신료(HS 코드: 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09.09 및 09.10)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HS 코드: 12.01, 12.02, 12.04, 12.05, 12.06 및 12.07)</p>
목적	식품 안전,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
심볼/ 내용설명	<p>G/SPS/N/JPN/653/Add.1 G/SPS/N/JPN/653(2019년 6월 17일자)에 고시된 시아노포스(Cyanophos)에 대해 제안된 잔류허용기준(MRL)는 2019년 10월 2일에 채택되어 발표되었다. 지정된 MRL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p>

배포일	2020/4/2
대상품목	<p>육류 및 식용 육류 내장(HS 코드: 02.07 및 02.09) 새의 알(HS 코드: 04.07 및 04.08)</p>

	동물성 제품(HS 코드: 05.04) 동물성 유지(HS 코드: 15.01)
목적	Food safety 식품안전
심불/ 내용설명	G/SPS/N/JPN/656/Add.1 G/SPS/N/JPN/656(2019년 6월 17일자)에 고시된 플루랄라너(Fluralaner)에 대해 제안된 잔류허용기준(MRL)가 채택되어 2019년 10월 2일에 발표되었다. 지정된 MRL은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배포일	2020/4/3
심불/ 내용설명	식용 채소 및 특정 뿌리 및 괴경(HS 코드: 07.01,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3 및 07.14)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의 껍질(HS 코드: 08.01, 08.02,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및 08.14) 차, 마테 및 향신료(HS 코드: 09.02, 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09.09 및 09.10) 시리얼(HS 코드: 10.05)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 각종 종자와 과일(HS 코드: 12.01, 12.04, 12.05, 12.06, 12.07, 12.10 및 12.12)
목적	식품 안전,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
심불/ 내용설명	G/SPS/N/JPN/654/Add.1 G/SPS/N/JPN/654(2019년 6월 17일자)에 통보된 테트라디폰(Tetradifon)에 대해 제안된 잔류허용기준(MRL)는 2019년 10월 2일에 채택 및 발표되었다. 지정된 MRL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배포일	2020/4/3
대상품목	어류 및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HS 코드: 03.02, 03.03, 03.04, 03.06, 03.07 및 03.08) 식용 채소 및 특정 뿌리 및 괴경(HS 코드: 07.02, 07.03, 07.04, 07.05, 07.07, 07.08, 07.09, 07.10 및 07.14) 식용 과일(HS 코드: 08.06, 08.07, 08.08, 08.09, 08.10 및 08.11) 차(HS 코드: 09.02) 시리얼(HS 코드: 10.05 및 10.06) 유지 종자 및 유지성 과일, 기타 곡물, 종자 및 과일(HS 코드: 12.01)
목적	식품 안전,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
심불/ 내용설명	G/SPS/N/JPN/655/Add.1 G/SPS/N/JPN/655(2019년 6월 17일자)에 고시된 테트라닐리프롤(Tetraniliprole)에 대한 제안된 잔류허용기준(MRL)는 2019년 10월 2일에 채택 및 발표되었다. 지정된 MRL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배포일	2020/4/3
대상품목	육류 및 식용 육류 내장(HS 코드: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및 02.09) 어류 및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HS 코드: 03.02, 03.03, 03.04, 03.06, 03.07, 03.08) 유제품 및 조류의 알(HS 코드: 04.01, 04.07 및 04.08) 동물성 제품(HS Code: 05.04) 동물성 유지(HS 코드: 15.01, 15.02 및 15.06)
목적	식품 안전,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
심볼/ 내용설명	G/SPS/N/JPN/657/Add.1 G/SPS/N/JPN/657(2019년 6월 17일자)에 고시된 네오마이신(Neomycin)에 대해 제안된 잔류허용기준(MRL)는 2019년 10월 2일에 채택되어 발표되었다. 지정된 MRL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배포일	2020/4/3
대상품목	식용 채소 및 특정 뿌리 및 괴경(HS 코드: 07.01,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및 07.13) 식용 과일 및 견과류(HS 코드: 08.02, 08.04, 08.06, 08.07, 08.08, 08.09, 08.10 및 08.11); 마테 및 향신료(HS 코드: 09.03 및 09.10); 시리얼(HS 코드: 10.01 및 10.05); 유지 종자 및 유지성 과일, 기타 곡물, 종자 및 과일(HS 코드: 12.01, 12.02 및 12.12)
목적	식품 안전,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
심볼/ 내용설명	G/SPS/N/JPN/659/Add.1 G/SPS/N/JPN/659(2019년 7월 30일자)에 통보된 캡탄(Captan)에 대해 제안된 잔류허용기준(MRL)는 2019년 10월 31일에 채택되어 발표되었다. 지정된 MRL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배포일	2020/4/3
대상품목	육류 및 식용 육류 내장(HS 코드: 02.01, 02.02 및 02.06) 동물성 제품(HS Code: 05.04) 동물성 유지(HS 코드: 15.02)
목적	Food safety, Protect humans from animal/plant pest or disease 식품 안전,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
심볼/ 내용설명	G/SPS/N/JPN/662/Add.1 G/SPS/N/JPN/662(2019년 7월 31일자)에 고시된 Bromofenofos에 대해 제안된 잔류허용기준(MRL)는 2019년 10월 31일에 채택 및 발표되었다. 지정된 MRL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배포일	2020/4/3
대상품목	<p>육류 및 식용 육류 내장(HS 코드: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및 02.09);</p> <p>유제품 및 조류의 알(HS 코드: 04.01, 04.07 및 04.08);</p> <p>동물성 제품(HS 코드: 05.04);</p> <p>식용 채소 및 특정 뿌리 및 괴경(HS 코드: 07.02, 07.04, 07.06, 07.07, 07.09 및 07.10);</p> <p>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껍질(HS 코드: 08.02,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및 08.14);</p> <p>마테 및 향신료(HS 코드: 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09.09 및 09.10);</p> <p>유지 종자 및 유지성 과일, 기타 곡물, 종자 및 과일(HS 코드: 12.10);</p> <p>동물성 유지(HS 코드: 15.01, 15.02 및 15.06).</p>
목적	식품 안전,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
심볼/ 내용설명	<p>G/SPS/N/JPN/664/Add.1</p> <p>G/SPS/N/JPN/664(2019년 7월 31일자)에 통보된 디티아논(Dithianon)에 대해 제안된 잔류허용기준(MRL)는 2019년 10월 31일에 채택되어 발표되었다. 지정된 MRL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p>

배포일	2020/4/3
대상품목	<p>육류 및 식용 육류 내장(HS 코드: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및 02.09);</p> <p>유제품 및 조류의 알(HS 코드: 04.01, 04.07 및 04.08);</p> <p>동물성 제품(HS 코드: 05.04);</p> <p>식용 채소 및 특정 뿌리 및 괴경(HS 코드: 07.01, 07.02, 07.04, 07.07, 07.09, 07.10 및 07.14);</p> <p>식용 과일 및 견과류(HS 코드: 08.01, 08.02, 08.03, 08.04, 08.06, 08.07, 08.08, 08.09, 08.10 및 08.11);</p> <p>차, 마테 및 향신료(HS 코드: 09.02, 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09.09 및 09.10);</p> <p>시리얼(HS 코드: 10.01 및 10.06);</p> <p>유지 종자 및 유지성 과일, 기타 곡물, 종자 및 과일(HS 코드: 12.05 및 12.07);</p> <p>동물성 유지(HS 코드: 15.01, 15.02 및 15.06);</p> <p>카카오(HS 코드: 18.01).</p>
목적	식품 안전, 동식물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
심볼/ 내용설명	<p>G/SPS/N/JPN/665/Add.1</p> <p>G/SPS/N/JPN/665(2019년 7월 31일자)에 고시된 티아클로프리트(Thiacloprid)에 대해 제안된 잔류허용기준(MRL)는 2019년 10월 31일에 채택되어 발표되었다. 지정된 MRL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p>